

2024
No.121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벽장재와 바닥재의 만남,
압도적인 스케일로 공간을 잇다

시그니월
진 그란데 스퀘어

Signiwall X Jin Grande Square

시그니월, 진 그란데 스퀘어 는 벽과 바닥을 통일해
시공할 수 있는 빅슬랩 목질 벽장재, 강마루 입니다



홈페이지

문의 **1899 - 2837** www.greendongwha.com

벽·바닥의 통일감 있는 석재 디자인

벽재, 바닥재간 패턴 매칭으로 미니멀하면서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가능

넓은 공간감 & 이상적인 비례의 규격

더 커진, 가장 안정적인 비율의 사이즈로 더 세련되고
넓어 보이도록 연출 가능

빠르고 편리한 시공

석재 디자인의 목질 제품으로 타일 대비 가벼운 무게,
파손 우려 없이 간편하게 시공 가능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03_ NEWS
- 04_ 97학번 동기회 발대식
- 06_ 명예교수 사은회
- 08_ 상반기 골프대회
- 14_ 교우회 연합세미나
- 15_ 교우동정
- 17_ 교우기부
- 20_ 인터뷰
- 25_ 교우신간
- 26_ 교우기고
- 34_ 학번별 소식
- 52_ 고대인의 날
- 54_ 모교 소식
- 55_ 경영대 소식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4 통권 제121호 Vol.43

발행일 2024년 6월 28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이동섭
편집인 양정인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408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kubs.or.kr
홈페이지 www.kubs.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격 3,000원

미래를 향한 일진의 혁신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진은 글로벌 No.1 자동차 휠 베어링 메이커로서
지난 5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 하겠습니다



휠 베어링과 샤시부품에서 산업용 베어링, 로봇 부품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전 세계 고객들과 함께 합니다

ILJIN

국내법인 | ILJIN GLOBAL • ILJIN GLOBALHOLDINGS • ILJIN BEARING • ILJIN CORP • BEARING ART

해외법인 | 미국 ILJIN USA • ILJIN AMERICA • ILJIN ALABAMA 중국 ILJIN TIANJIN • ILJIN BEIJING • ILJIN CHONGQING • ILJIN JIANGSU • ILJIN SHANGHAI

유럽 ILJIN GmbH • ILJIN MOTION & CONTROL GmbH • ILJIN SLOVAKIA 인도 ILJIN INDIA • ILJIN GLOBAL INDIA

판매사무소 | PARIS (FRANCE) • TURIN (ITALY) • PUNE (INDIA) • BEIJING (CHINA) • YOKOHAMA (JAPAN) • SAOPAULO(BRAZIL)

일진그룹 본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27 Tel 02-553-1795 Fax 02-566-5621 www.iljin.com

일진그룹 회장 이동섭 (경영89)



일진그룹 새 수장 이동섭 (경영89, 경영대학 교우회장)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이 6월 17일(월) 일진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일진그룹은 1973년도에 일진물산으로 출발하여 단조 사업부터 컨테이너 부품, 샤시 부품을 생산하였으며 1994년 베어링 국산화를 시작하여 자동차용 휠베어링 생산 및 수출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다. 이동섭 회장은 굴지의 자동차 부품회사로 성장시킨 창업주 고(故) 이상일(상57) 회장의 장남이다.

이 회장은 영동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어바나 캠퍼스에서 MBA를 마친 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과 서울대학교 AMP를 수료했다. 삼성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고 2003년 일진글로벌에 입사하여 기획조정 및 전략기획 실장을 거쳐 2011년 일진그룹 총괄사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일진그룹 부회장직을 수행했다.

2023년도에 제9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장으로 취임한 이동섭 회장은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97학번동기회
발 대 식



97학번 동기회
발대식

2024.4.24(수)
역삼동 이도곰탕



2024년 '42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를 주관할 97학번 교우들의 첫 모임이 4월 24일(수), 97학번 동기회 발대식으로 역삼동 이도곰탕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모임을 축하하기 위해 909 회장 최창규(경영90) 부회장이 참석했고 97학번에서는 B반 강민, C반 권순기, 진경언, D반 심건, E반 김영일, 심윤석, 엄원진, 유진, 이승민 교우가 참석했다.

97학번 교우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의 근황을 확인하고 학창 시절의 추억, 재직하고 있는 회사 업무와 맡고 있는 분야의 전망, 경제 상황, 자녀 양육, 보고 싶은 동기들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날 참석했던 97학번 교우들은 경영대 교우회 공식 행사와 교우회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한 적 있는 교우들이 대부분이었다.

C반 권순기(경영97) 교우는 "909 모임에 처음 나가서 귀한 인연으로 많은 교우들을 만나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97학번 동기들 모임이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오늘 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동기들과 즐거운 인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다”라고 앞으로의 97학번 동기 모임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D반 심 건 교수는 “항상 고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올해 교우의 밤 행사를 성공적으로 열도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반 심윤석 교수는 “처음 보는 동기들도 있어서 조금 어색하지만 모임에 잘 참여하겠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창규 909 회장은 “97학번들이 올해 12월 6일 경영대 교우의 밤 행사의 장학금 모금을 주관하는 학번이기에 동기들이 합심해서 행사 잘 치뤘으면 한다”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건배사로 97학번 교우들을 격려했다.

이동섭 교우회장은 “교우의 밤 모금 활동을 통해 97학번 교우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기존의 모임이 더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바빠서 그동안 활동이 뜸했던 교우들도 이제는 동기 모임에 참석하고 교우회 행사에도 참여하여 성원해준다면 교우회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오늘 첫발을 뗀 97학번의 모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한편, 97학번 동기회와 경영대학은 8월 말 가족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대 경영대학 97학번 Family Day

본 행사는 매년 경영대학 교우의 밤 주관학번(올해는 97학번)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초중고 학부형이 되는 97학번 동기들과 배우자, 자녀 등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는 뜻깊은 행사로 자녀들에게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소** | 경영대학 LG-POSCO경영관 6층 안영일 홀
- **시간** | 10:30~14:00
- **일정** | 식전 가족 사진 촬영> 환영사 및 경영대학 소개> 뷔페 식사> 단체사진> 캠퍼스 투어> 기념품 증정
- **주차** | 중앙광장 지하 주차장(주차권 증정)
- **행사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8월 24일(토), 25일(일), 31일(토) 세 날짜 중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 **문의** | 경영대학 교우회 사무국(02-922-3762)

명예교수
사 은 회



명예교수
사 은 회

2024.5.8(수)
패컬티하우스 송림

사진제공 · 고(故) 김동기 명예교수 가족



5월 8일(수) 오후 12시에 이동섭 교우회장은 모교 패컬티하우스 송림에서 명예교수 사은회를 열었다.

명예교수 서른 분 중에서 지방 일정으로, 강의 스케줄로, 여행으로, 병환으로 참석하지 못한 스무 분을 제외하고 열 분(지 청, 신수식, 황규승, 윤영섭, 이장로, 이진규, 유관희, 문형구, 이만우, 이두희)과 이동섭(경영89) 교우회장, 박창수(경영85) 사무국장, 차기 사무국장으로 선임된 양정인(경영95) 사무국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95학번동기회 총무인 최성훈 교우가 사은회 시작 전 행사장에 들러 최 교우의 지도교수인 문형구 명예교수와 오랜만에 해후했으며 행사 중간에 김동원 총장이 인사차 방문하여 명예교수들께 안부를 묻고 정담을 나눴다.

이동섭 회장은 “전날까지 연일 비가 지속되다가 오늘은 개어서 5월의 푸르름 속에 교수님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다. 학생들에게 가르침과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자들에게 조언 많이 해주시고 교우회 행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사은회에 참석한 명예교수들은 사은행사를 마련해준 데 대해 이동섭 교우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 회장이 몸담고 있는 일진그룹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지 청 명예교수의 “고려대학교와 경영대학 교우회를 위하고!” 건배사 이후 건강 관련 덕담과 개인 근황을 주고받으며 오찬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또한 새로 선임된 양정인 사무국장을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즐거운 오찬시간을 마치고 교우회에서 미리 준비한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홍삼 선물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명예교수 한 분, 한 분께 전달했다.



상 반 기
골프대회

고려대 경영대학 교우회

상반기 골프대회

몽베르CC



고려대학교 경영대

2024 상반기

일시 2024. 6. 13(목)

경영대학 교우회 주최 상반기 골프대회가 6월 13일(목) 경기도 포천시 소재 몽베르CC 남코스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63학번부터 14학번까지 이동섭(경영89) 경영대 교우회장을 비롯하여 김동원(경영78) 총장, 어윤대(경영63) 전 총장, 김영환(경영66) 벽제외식산업개발 회장, 최성진(경영72) GS네오텍 고문, 한운상(경영78) 고려대학교 교우회 수석부회장, 김미숙(지교81) 사범대 교우회장, 신호정(경영86) 대외협력처장, 최철원(무역88) MIGHT & MAIN 사장, 방송인 정이나(가교08) 교우 등 23개조, 90명이 참가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금강고속버스 대표이사 임상길(경영85) 교우의 전세버스 찬조로 30명의 교우들이 편안히 이동할 수 있었다.

2023년 11월 동화그룹 승명호(무역74/고려대학교 교우회장) 회장이 인수한 몽베르CC는 주변에 산정호수와 명성산이 있어 경관이 좋고 36홀을 갖추고 있다. 회원제 북코스(브랭땅, 에페), 대중제 남코스(오픈, 이베르)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골프행사는 북코스의 리모델링 공사로 불가피하게 남코스로 변경해서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거타를 친 김정남(경영05) 교우가 메달리스트를, 스코어 69.8점을 기록한 윤선규(경영92) 교우가 신페리오 1등을, 스코어 71.8점을 기록한 안성희(경영95) 교우가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메달리스트	김정남(05)	71타
아깝지만 참아상 (2등)	남상영(85)	71타
여자부우승	안성희(95)	85타
신페리오1등	윤선규(92)	69.8점
여자부신페리오1등	정현승(98)	71.4점
신페리오1등팀	2조: 어윤대(63), 최성진(72), 남상영(85), 이영진(89)	
니어리스트	김동원(78)	3m
롱기스트	이도연(90)	270m
여자부롱기스트	김민정(95)	180m
샷이글	정이나(가교08)	
일심동체상	3조: 안덕수(64), 김대형(68), 박성철(81), 최창규(90)	
베스트드레스드상	4조: 강동식(64), 류병기(72), 신호정(86), 신명석(95)	
포토제닉상	13조: 김현수(93), 배지연(95), 김현철(96), 이승주(03)	
건강상	어윤대(63)	
막내상	남태양(14)	
최다학번상	95학번(김민정, 김도형, 김소연, 배지연, 신재욱, 안성희, 이규원, 한성근)	
첫꼴발상	이차복(68)	
100점상	서희원(89), 오선근(90), 홍창기(97), 김태호(11)	
가성비상	류병기(72)	









라운딩을 마치고 만찬장에서 방송인 정이나(가교08) 교우와 함께 진행을 맡은 안종욱 교우는 “이번에 드릴 상과 선물이 많은데 사회자인 저에게 맘대로 상품을 배포할 막강한 권한이 생겼다”며 교우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진행으로 2부 순서를 열었다.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은 인사말로 “지난 4월 힐링트레킹이 우선 취소되고 경영대 교우회 야외 행사로는 오늘이 처음이다. 이번 골프대회 준비할때 골프장 공사로 인한 코스 변경과 목요일 진행으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걱정했지만 90명의 교우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운대 전 총장은 “고려대학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경영대학을 졸업한 여러분들도 더욱 발전하여 고려대학교와 경영대학의 미래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달라”며 모교 발전에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미숙(지교81) 사범대학 교우회장은 “경영대학이 발전해야 고려대학교가 발전하고, 고려대학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기백이 넘치는 건배사로 만찬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주요 부문 시상 외에 많은 교우들이 수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건강상, 최다학번상 등 개인별, 단체별 특별상을 여러 부문으로 확대해 시상했다. 이번 행사에도 여러 교우들이 물품 찬조에 동참했으며 행운권 추첨 및 ‘이동섭을 이겨라’ 게임으로 교우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응원단의 공연과 교가 제창으로 상반기 골프대회를 마쳤다.



찬조해 주신 분들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89)	황남빵 95개, 레드와인 30병	오선근 부회장(90)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승명호 고려대학교 교우회장(74)	고대 120주년 와인 20병	최창규 부회장(90)	보스톤백 1개
김미숙 사범대 교우회장(지교81)	단백질 음료 100box	신재욱 부회장(95)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김영환 자문위원(66)	봉피양 30만원 식사권 2매	양지은(01)	걸그룹 트리플에스 “어셈블24(ASSEMBLE24)” 사인CD 10개
이차복(68)	초정탄산수 100병	정진혁 부회장(04)	테일러메이드 드라이버 1개, 우드 2개, 퍼터 2개
박수근 부회장(81)	마스크팩 100box	신재하(교육03)	메디큐브 컨투어 바디샷 1개, 울세라립샷 · 부스터젤set 7개
조명제(82)	아웃도어 선패치 100box	양지현(13)	꼬기다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10개, 단백질 보충제 10개
경영대학(김상용 학장)	ICE텀블러 106개		
임상길(85)	전세버스 1대 운행		
정경모 809회장(86)	현금 100만원		
김평국 부회장(89)	고급 샴페인 15병		



Seminar

경영대 교우회 x 사범대 교우회 연합세미나

5월 29일(수) 사범대학 운초우선교육관 203호 강당에서 '뷰티 산업의 트렌드와 미래발전'을 주제로 경영대 교우회와 사범대 교우회가 제1회 연합세미나를 개최했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했으며 전체 54명 참석자 중에 경영대 교우는 90학번부터 재학생인 24학번까지 36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윤상(경영78) 고려대학교 교우회 수석부회장, 전현주(가교78) 여자교우회 회장, 김미숙(지교81) 사범대 교우회장, 김평국(경영89) 경영대 교우회 부회장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신재하 교우는 교육학과 03학번이며 경영학과를 부전공했고 현재 에이피알 부사장(CFO)을 맡고 있다. 에이피알은 가정용 미용기기(뷰티 디바이스) 등을 제조하는 뷰티테크 회사이며 대표브랜드로는 '메디큐브', 화장품 '에이프릴', 패션브랜드 '널디'등이 있다. 에이피알은 올해 2월, 시가총액 2조 규모로 코스피 상장 성공했다.

신재하 교우는 어떻게 뷰티산업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당시의 경험담을 풀어내면서 뷰티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비

즈니스 모델에 흥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왜 K뷰티가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지에 대해 예전의 K-WAVE(한류)때와 다르다고 소개했다. 현재는 글로벌 타겟이 아닌 로컬중심의 제작물도 K컨텐츠가 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K엔터테인먼트에 맞물려 K뷰티시장도 성장하는 중이고, 한국은 최신 트렌드를 읽고 빠르게 앞서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재하 교우는 뷰티 패러다임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분석하여 화장품과 피부과의 장점과 한계를 짚었다. 이어 아이템 선정과 동종업계 벤치마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뷰티 디바이스를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하고 성공하게 된 노하우를 공유했다.

1시간 이상 진행된 강연을 마무리하고 행사에 참석한 교우들의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 이후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여 각종 상품을 증정하고 단체사진 촬영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 교우동정



김경문 (경영78)

2024년 6월 2일
김경문 교수가 프코야구
한화 이글스 감독으로
선임됐다.



추경호 (경영79)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 대구달성군
추경호 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김종앙 (경영81)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 경남 창원의회
김종앙 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배홍기 (경영81)

2024년 4월 17일
배홍기 교수가
PKF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에 연임됐다.



이현승 (경영81)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 부산진구를
이현승 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안효열 (경영85)

2024년 4월 2일
안효열 교수가
우리금융캐피탈
감사에 선임됐다.



김기영 (경영86)

2024년 5월 24일
김기영 교수가
한국회계학회 차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요섭 (경영87)

2024년 5월 13일
임요섭 교수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으로
승진했다.



김광용 (무역89)

2024년 5월 17일
김광용 교수가
행정안전부 대변인
으로 임명됐다.



민준선 (경영90)

2024년 6월 14일
민준선 교수가
삼일회계법인 일부
대표에 선임됐다.



배재민 (경영91)

2024년 5월 31일
배재민 교수가
한국 딜로이트그룹
컨설팅 대표로 선임됐다.



주환욱 (경영91)

2024년 3월 6일
주환욱 교수가
기획재정부 경제구조
개혁국장으로 승진했다.



류종영 (경영92)

2024년 3월 11일
류종영 교수가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다.



양정인 (경영95)

2024년 5월 1일
양정인 교수가
경영대 교우회
사무국장으로 취임했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신동열(경영76) 2024년 4월 20일 아들 연호 군

박재준(경영79) 2024년 5월 25일 장남 성진 군

조청명(경영79) 2024년 5월 18일 딸 아름 양

우진혁(경영81) 2024년 5월 25일 아들 상범 군

조영민(경영03) 2024년 6월 8일 본인 결혼

박원영(경영14) 2024년 5월 18일 본인 결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만용(상60) 2024년 3월 7일 본인 별세

김은동(상61) 2023년 10월 3일 본인 별세

김태원(경영61) 2024년 4월 28일 본인 별세

박광동(경영61) 2024년 5월 1일 본인 별세

박성학(경영61) 2023년 10월 17일 본인 별세

백재순(경영61) 2023년 10월 22일 본인 별세

양광민(경영61) 2023년 6월 16일 본인 별세

최상덕(경영76) 2024년 4월 24일 빙모상

김일용(경영78) 2024년 4월 9일 모친상

김영한(경영79 C반) 2024년 5월 13일 빙부상

안태용(경영79) 2024년 4월 17일 빙부상

이상현(경영79) 2024년 3월 31일 모친상

정춘돌(경영79) 2024년 6월 11일 빙모상

권흥국(경영79) 2024년 6월 23일 모친상

김석영(경영86) 2024년 5월 21일 부친상

신호정(무역86) 2024년 5월 21일 빙부상

서천호(경영89) 2024년 6월 18일 빙부상

태일준(경영89) 2024년 5월 25일 모친상

서호석(경영93) 2024년 4월 1일 빙부상

정진혁(경영04) 2024년 6월 25일 빙부상

정영준(경영09) 2024년 5월 26일 본인 별세

유상옥 코리아나 화장박물관·미술관장 제27회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수상

문화경영에 대한 의지와 열정으로
지난 21년간 화장문화 전문박물관과
현대미술관 운영,
지속적인 문화재 기증활동을 통해
문화나눔경영의 모범적 역할 공로 인정받아



제27회 자랑스런 박물관인상을 수상한 유상옥 관장

유상옥 코리아나 화장박물관·미술관장이 5월 13일(월)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진행된 제27회 전국박물관 인대회에서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런 박물관인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2년, 보관 문화훈장 수훈에 이어 유 관장의 문화경영에 대한 의지와 열정,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가 이번 수상을 통해 다시 한 번 빛을 보았다. 매년 진행되는 '자랑스런 박물관인상'은 박물관·미술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 박물관·미술관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박물관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박물관·미술관인 최고의 영예로 꼽힌다.

(주)코리아나화장품의 설립자인 유상옥(상55/경영대 교우회 자문위원) 관장은 국가의 힘은 국가의 문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50여 년간 개인이 수집한 5,000여 점의 화장 유물을 기반으로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화장문화 전문박물관과 동시대 미술을 연구하고 선보이는 미술관을 함께 설립했다. 이후 21년간 전문적으로 운영하며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 관장은 한국 화장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자

2006년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파리 특별전을 시작으로 런던, 도쿄, 베이징, 뉴욕, 시드니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장품 국외 기획전을 선보여 한국 문화예술의 진수를 널리 알리며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힘써왔다. 또한, 청양, 안동, 여수, 익산, 전주 등 국내 지역의 문화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민들을 위한 미인도 소장품 전시를 개최하여 지역민의 예술 향유 기회 증대 및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기여해 왔다.

뿐만 아니라, 개인 소장 유물 및 미술품을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지역 각지의 박물관에 지속적으로 기증함으로써 문화나눔경영 및 사회환원활동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유상옥 관장은 "50년이 훌쩍 넘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유물과 미술품을 수집했고,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해 운영하며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는데, 이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이제 나이가 아흔이 넘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문화국가로 더욱 성장하도록 생을 다하는 날까지 나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포부도 전했다.

기사제공 · (주)코리아나화장품



(왼쪽부터) 김상용 학장, 강동식 교우, 김동원 총장, 신호정 대외협력처장

“입학 60주년을 맞이하여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강동식 교우, 경영대학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강동식 ‘공인회계사 강동식 사무소’ 대표(경영64)가 경영대학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

고려대는 3월 22일(금) 오전 10시 본관 총장실에서 ‘강동식 교우 경영대학 발전기금 기부식’을 가졌다.

강동식 교우는 2000년부터 교우회와 본교에 꾸준히 기부하며 고려대의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힘써주고 있다.

이번 기부식에서 강동식 교우는 “2024년이 입학 60주년이다. 고려대가 세계 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포부가 있으니 나 또한 고려대의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고

싶었다. 그중에서도 경영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경영대학 후배들을 위해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하여 기부했다”라며 “경영대학이 더욱 발전하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원 총장은 “훌륭한 교우들이 학교를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모교의 발전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강동식 교우님의 기부금은 고려대 119년 역사와 함께해 온 경영대학이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글로벌 명문으로 발전하는 데에 소중한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3월 22일자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췌



(왼쪽부터) 최상영 교수, 김동원 총장

“계속해서 기부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최상영 영스틸(주) 회장, 발전기금 10억 8천만 원 쾌척, 누적 기부액 33억 원

최상영(경영69) 영스틸(주) 회장이 개교 120주년을 앞둔 고려대의 발전을 위해 10억 8천만 원을 쾌척했다. 이로써 최상영 회장은 모교에 누적 기부액은 33억 원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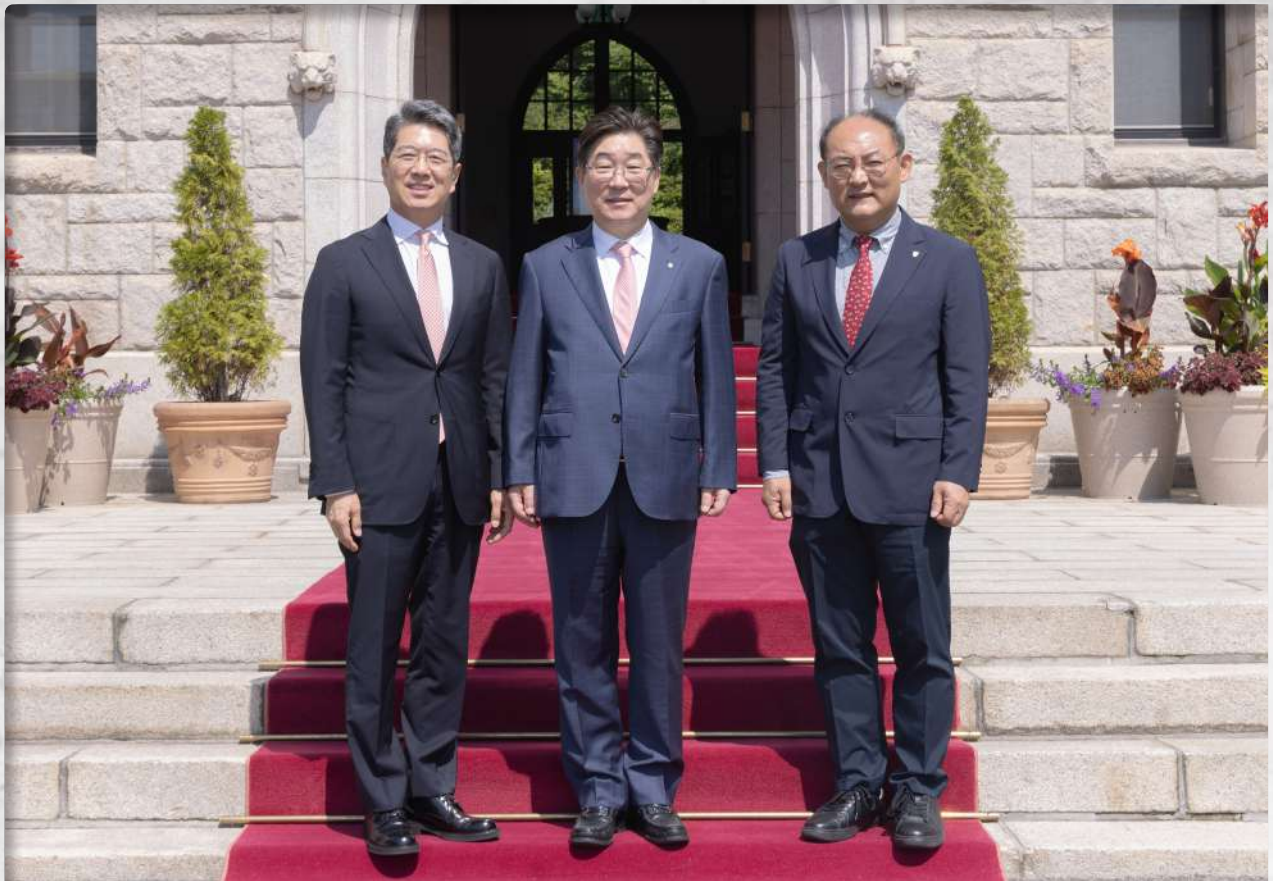
고려대는 백주년기념관 일민 라운지에서 ‘최상영 영스틸(주) 회장 고려대 발전기금 기부식’을 가졌다.

최상영 영스틸(주) 회장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교우회 회장을 맡으며 고려대와 와세다대 간의 협력 관계 구축에 힘썼고, 2003년부터는 고려대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했다. 최 회장은 경영대학 발전기금, 교우회 장학금을 포함하여 모교 럭비부 선수의 훈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상영 영스틸(주) 회장은 지난 3월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이번 기부식에서 최상영 영스틸(주) 회장은 “내 마음의 고향 고려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늘 감사한 마음을 새기며 나눔과 기부, 봉사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살아왔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부를 실천하며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기부가 개교 120주년을 앞둔 고려대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 기부식을 준비해 준 김동원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원 총장은 “모교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성원해 주시는 최상영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회장님처럼 모교를 생각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학교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쾌척해 주신 발전기금은 개교 120주년을 앞둔 고려대가 위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5월 9일자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췌



(왼쪽부터) 이선용 교수, 김동원 총장, 신호정 대외협력처장

“경영대 교우회의 기부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

이선용 베어트리파크 대표, 크림슨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이선용(경영80) 베어트리파크 대표가 고려대의 발전을 위해 크림슨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고려대는 5월 29일(수) 오전 10시, 본관 총장실에서 ‘이선용 베어트리파크 대표 크림슨 발전기금 기부 약정식’을 가졌다.

이선용 대표는 2010년부터 경영대학 발전기금, 장학금, KU PRIDE CLUB 등 다양한 용처에 꾸준히 기부하며, 고려대의 발전에 많은 응원과 힘을 보내주고 있다.

이번 기부식에서 이선용 베어트리파크 대표는 “경영대

809’ 1기 회장으로서는, 이번 기부가 경영대 교우회의 기부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고려대 학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견인할 글로벌 인재가 되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원 총장은 “고려대 ‘기부의 역사’에 동참해 주신 이선용 대표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총장은 “쾌척해 주신 크림슨 발전기금은 개교 120주년을 앞둔 고려대의 인프라 증진과 체인지 메이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소중한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5월 30일자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췌



Safe Smart Automation Good 안전하고 스마트한 세상을 위해 자동화를 통해서 좋은 사회를 구현한다

(주)아트랩소프트

오 선 군

대표이사

무역 90



Q1. 교우님과 회사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아트랩소프트 대표이사를 맡고있는 무역학과 90학번 오선군입니다. 회사이름인 '아트랩'은 제가 2009년 유럽출장에서 독일 바이어로부터 '예술(Art)과 사업(Business)은 창의성으로 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의성을 상징하는 아트(Art)와 기술연구소를 표현하는 랩(Lab)을 회사명으로 정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5년도에 시작하여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 및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전체 근무하는 직원은 36명이고 대표인 저를 포함해서 경영지원팀까지 3명 빼고 모든 분들은 컴퓨터공학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 엔지니어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연구소에서 13명이, 두산 에너지빌리티 연구소에서 12명이 상주하며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고 있고 11명 정도가 본사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2. 어떠한 계기로 IT회사를 운영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994년도에 주식회사 대우에 처음으로 입사했고, 그때 당시 꿈은 해외사업을 잘 배우고 해외 주재원을 두 번 정도 다녀와서 40대 초반에 해외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IMF이후 대우가 어려워져 2000년도에 퇴사했고 사업의 방향을 어느 분야로 할 것인가, 전통적인 섬유나 건설보다는 경영대학에서 배웠던 MIS(경영정보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가 전망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모코코(현 모코엠시스), 사업 아이템 찾기 위해 입사한 다우기술을 거쳐 엘린소프트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후 1년 반 만에 사업 실패 후, 사업 주력 분야를 소프트웨어 고품질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결정했고, 그 일을 위해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자동화'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테스트 자동화는 결국 AI기술을 적용하는 것인데 IT시대, AI시대에 적합한 아이템을 정해서 사업을 시작했더니 비전공자였지만 노력의 결과들이 쌓여서 조그만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Q3. MIS(경영정보시스템)쪽으로 원래 흥미가 있었나요?

MIS를 수강하면서 그 과목을 재미있게 생각했고 중간고사때 C프로그램 시험 봤던 것도 기억납니다. 경영대학에 있으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소프트웨어공학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을 기술적으로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술들을 금융기관, 기업들과 공공기관에 잘 적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베네핏을 주는 것을 사업의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김대호 교수님께 배웠는데, 학점이 안좋아 재수강하면서 MIS를 더 체득할 수 있었고, MIS 배울 당시 영어원서로 공부하면서 사례들을 많이 익혔던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Q4. AI(인공지능)의 발전은 하시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I(인공지능)를 규정하는게 여러 가지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자동화라고 봅니다. 또한, 사람을 잘 흉내내는게 AI 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LLM 기반 인공지능에 질문만 하면 그 렇듯하게 답을 줍니다.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테스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연구를 계속하면서 테스트를 '자동화'하여 기존에는 사람이 많은 시도로 테스트해야 하는 단순 반복적인 부분을 자동화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AI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테스트 자동화라고 하는 것에는 범주가 많고 그 테스트를 여러 케이스(사례)로 해야 하는데 그 테스트케이스를 AI(자동화)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관리하는거죠, 사람이 하는 일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적용해 테스트해도 오류가 있는데, 대량 반복 테스트를 실행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테스트자동화도구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화 비율을 높이고 있는 중이고요. 100% 완벽한 테스트케이스를 만드는건 어렵지만 테스트자동화(AI) 기술을 통해 소프트웨어 오류를 줄여나가며, 안전하고 스마트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Q5. 작년에 출시한 ‘메시지테스터4.0(Message Tester)’으로 하이테크어워드(Hi-Tech Award) SW테스트 자동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메시지테스터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아트랩소프트의 메시지테스터는 테스트케이스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시스템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솔루션입니다. 2023년도 코스닥 상장한 슈어소프트테크(주)로부터 2018년도에 기술이전을 받아 저희 아트랩소프트 연구소에서 고객사에 어떻게 테스트자동화를 지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업그레이드 하면서 메시지테스터 4.0버전까지 발전시켰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신규업무 생성이나 영업 정책 및 요구사항 반영 등에 따라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이나 수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신규개발 및 수정사항을 요구할 때 이뤄지는 전문(금융기관 내부 시스템간 서버와 단말 사이에 오가는 송수신 수단이며 계좌정보, 서비스 코드, 전송일자 등 정보가 포함)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결과가 금융 시스템에 적합한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테스트해야 하고요. 변경된 시스템에 맞지 않는 전문이 테스트 없이 사용되는 경우 기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오류를 발생시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메시지테스터는 전문 구조의 변경이 있어도 매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해 테스트케이스를 새로운 거래 로그와 일치시켜줍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테스트에 쓰여지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오류를 최대한 줄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현재 10여 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메시지테스터는 금융권 이외에도 연기금, 홈쇼핑, 물류, 제조 분야 등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많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테스트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제품을 클라우드화(서버를 통한 서비스)하는 것도 연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프로세스와 관련되기 때문에 클라우드화하면 해외 진출도 잘 될거라 봅니다.

Q6. 아트랩소프트의 경쟁력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의 경쟁력은 커스터마이징(고객사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고객사 분야에 맞게 제품을 만듦)입니다. 경쟁사는 큰 회사다보니 고객사의 요청사항과 특성을 반영해서 제품개발에 적극적이지는 않은 편입니다. 저희는 이와 다르게 커스터마이징 요청사항을 전라적으로 받아들여 요청한 고객사에 맞게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경쟁업체나 타업체에 비해 저희는 전문 기반의 테스트자동화 연구개발 업무를 제일 오래 해왔습니다. 이에 비례해 기술과 경험이 쌓여왔고요. 실제로 고객사로 부터 저희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들으면 대기업 연구팀 경험 많은 수석들도 전문업체인 저희와 함께하시길 원하고 저희 솔루션을 쓰는 것이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비용을 아낀다고 하십니다. 또한 저희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보이지 않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소리 없이 쌓아 가면서 IT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경쟁력으로 노력한 결과, 일본 손해보험회사에서 관심을 보이는 등, 해외 진출의 기회도 생겼습니다.

Q7.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첫 번째는, 첫 회사인 엘린소프트를 창업하고 1년 반 이후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입니다. 고대 동기나 선배들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희 회사의 주력 분야가 뭔지, 뭘 잘하는지 명쾌하지 않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주력 분야를 좋은 소프트웨어 품질을 위해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제가 아트랩소프트를 창업할 당시 샤넬 신제품 출시에 매장 오픈 전부터 길게 줄서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고품질과 High Brand를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여 전도유망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고품질을 추구하는 것을 사업의 핵심 포인트로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회사가 기술이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슈어소프트테크(주)로부터 기술 이전 받을 때 많은 부분을 교육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서비스해야 했습니다. 그럴때 H증권사의 일을 맡았는데, 약속한 기간 안에 테스트를 못끝낸데다 기간을 연장해서 일을 진행했지만 70%밖에 못해서 지체상금도 물은적 있습니다. 그때는 기술도 경험도 모두 부족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도움이 되고자 공부하기 시작했고 연구원들과 직원들을 다독이며 천천히 진전시켜 나가며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런 고생했던 시간들을 지내면서 경험을 쌓고 저희 지식과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거죠.

Q8. 경영대학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경영대학 졸업생중 IT사업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MIS가 기업의 효율, 경쟁력을 올려주는 장점을 살리는 일과 같은 맥락으로, 지난 20여년간 IT, 스마트폰 시대가 대단하게 발전한 것과 같이, 향후 엄청나게 확대 발전될 AI기술을 잘 활용하여 모든 산업 분야의 회사들과 공공기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 모교 후배들이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AI시대에 경영대학에도 그런 과목들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IS도 AI시대에 맞게, 예를 들면 AI MIS라던지 해서요. 저희 회사에 IT전략, 창업을 잘하는 방법 등 소프트 스킬을 가르치는 기술전략 담당으로 KAIST박사가 계십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의 특강이나 강좌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를 잘 대응해 오면서 글로벌 Top10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AI시대에는 인재를 넘치는 우리나라가 AI 기술을 잘 적용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Top5를 향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은 역시, 고려대 경영대’를 떠올리듯 AI시대에 맞게 AI산업(AI기술이 들어간 바이오, 의료, 법률, 농업, 광업, 전산업 등 모든 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도 ‘AI산업은 역시, 고려대 경영대’ 이렇게 밝은 미래를 선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Q9. 아트랩소프트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국내 사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아트랩소프트의 해외 진출을 성공시켜 글로벌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 및 테스트 자동화 전문 회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2030년내에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여 함께 협력하며 노력하고 있는 아트랩소프트 임직원 모두의 삶에 조금이나마 결실의 열매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10. 교우들에게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1989년도 부천고등학교 3학년 겨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학력고사를 치렀는데 ‘떨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모교 대운동장에서 합격자 명단 확인하는 순간, 평생 잊지 못할 기쁨과 감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입학 후, 응원단의 응원이 연습으로 고대인만이 누리는 즐거움을 느꼈고, 이후 1990년 가을에 열렸던 정기 고연전을 통해 엄청난 함성과 응원, 뒤풀이 행사까지 즐기면서 고대인들의 강한 결속을 경험했습니다. 모교 학창 시절의 많은 추억은 직장 생활하면서 무기력해질 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사회 속에서 선배님들의 활약을 작간접적으로 마주하며 고려대 경영대학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입학당시 오선근 교우



2015년 제 35회 경영대 교우의 밤을 준비하며



1990년 5월 29일 무역학과 90학번 동기들과

행복한 택배 기사

임동욱 지음

행복한
택배 기사

행복을 찾은 택배 기사가 전하는 위로와 격려!

서 명 행복한 택배 기사

출판사 휴먼큐브

저 자 임동욱(경영95)

출판일 2024.3.13

우리는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선택지가 펼쳐진 세상을 살고 있다. 그만큼 눈앞에 펼쳐진 수만 갈래의 길 앞에서 두려워하고 방황하게 된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안정과 도전 중 무엇이 정답인가 나만의 길을 가도 괜찮을까 가장으로서, 혹은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할까?

선택지가 많은 만큼 고민과 혼란도 커졌다. 점차 마음의 감기를 앓는 사람이 많아져, 어느새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고 그중 20대, 30대 청년 우울증 환자의 수가 가장 많다. 이 100만이라는 숫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뿐이니, 일상에서 우울감을 느끼며 애써 살아가는 청년들은 더욱 많을 것이다.

‘행복한 택배 기사’는 이러한 고민에 휩싸인 청년과 직장인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솔직하고 현실적인 에세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기도 했고, 오직 꿈을 위해 도전에 뛰어든 모험가이기도 한 저자의 삶이 성공과 실패, 역경과 극복이 함께 펼쳐진다. 남들보다 많은 직업과 도전과 감정을 경험한 저자의 이야기는 응원이 되고, 솔직한 우울증 극복기는 공감과 위로를 주며, 스타트업 세계로 뛰어든 경험은 스타트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언이 되어줄 것이다. ‘행복한 택배 기사’를 통해 저자는 우울증의 수렁에 빠져 껍데기뿐이었던 시간, 그 삶에서 맘 흘리고 찬란한 햇빛을 마주하며 다시 일어난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달리며 지쳐가는 청년들에게 위로를,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응원을,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에게 격려를 전한다.

숙성의 시간



春崗 **황인강**
상61·수필가

글을 쓰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안 되어서다. 어느 강연에서 ‘사색의 발효’란 주제의 강의를 들었다. 그 강연을 듣고 나는 강한 자극을 받았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글쓰기에 가벼운 흥분까지 일렁였다. 발효는 효모,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에 의해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수많은 미생물이 합쳐서 전혀 다른 모습의 물질이나 형태로 변하는 발효는 의미가 심오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렸을 때의 기억이다. 외할머니는 고추장 된장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장독에 메주와 숯, 빨간 고추 등을 넣은 독에 햇볕과 바람을 자주 쐬주곤 했다. 어느 정도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장의 상태가 변화되어 부풀어 올라온다. 자주 들여다보며 맛을 보기 위해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 보시던 모습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어떤 독은 아직도 제맛이 안 난다고 장독의 뚜껑을 덮으셨다. 원하는 장의 숙성이 아직 안 되어서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맛있는 된장 고추장이 되었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발효 기능이다.

‘사색에 발효를 한다고 하는 말은 발효라는 과정을 통하여 차원이 다른 물체나 형이상학적인 분위기 또는 보이지 않는 우월적인 가치로 승화된다는 뜻이리라. 발효가 제대로 되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일이나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충분한 발효가 이루어짐으로써 일이 달성되고 성취의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과정에 어떤 일정한 물이 꼭 있는 것은 아니다. 종류에 따라 다를 뿐이다. 집에서 자주 담가 먹는 김치를 며칠 두었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꺼내어 맛을 보는 이치와 같다고 할까.

생각을 발효한다는 말이 조금은 생경하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으로 생각의 발효는 통상 6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기억 속에 묻혀있는 아련한 추억을 끄집어내어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리라. 시간개념으로 보면 지금은 많이 짧아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글을 쓰려고 책상 앞에 앉아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아 한 줄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물론 저명한 수필가도 쌓아온 메모 바구니에 써놓은 분량에 따라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고충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평소 주제에 대하여 생각을 한 메모지를 뒤적거리며 생각을 정리한다.

그나마 메모라도 있다면 대기하는 시간은 짧아진다. 음식도 아닌데 발효를 시켜야하고 그에 따른 시간까지 필요로 하는가 하고 의아해했다. 학창 시절엔 조용하고 깊게 사색하며 미래의 희망과 포부를 살펴보기도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글 쓰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모른다. 사색에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가면서도 생소하여 처음에는 얼떨떨했다. 어떻게 해야 발효가 되는가 하는 사실에 곰곰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렇지’ 일정한 발효와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글이 쓰여 지지가 않는다고 불평하는 나도 속스러웠다. 당장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시간과 끈기를 거쳐야 되는 이 발효는 감내해야 할 필요 조건이 아니던가.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재촉하거나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현대를 ‘스피드 시대’라고 하지만 모든 사물이나 형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맹점이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하리라. 기다리고 다져야 하는 발효라는 과정은 오늘날의 변화무쌍한 시대와는 맞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겠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에도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함은 깊이 음미해야 할 덕목이 아닐까. 20여 년 전, 매주 한 편의 글을 갖고 문화원으로 달려갔다. 부끄러운 글이지만 그 글도 써지지 않을 땐 나의 독서 부족을 탓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 포기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소양 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글을 쓰려고 하는 생각에 틈을 들이고 발효가 되기까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맞다. 물론 평상시에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하는 것도 일종의 발효의 시초다. 글쓰기 위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해서 지난날의 기억이나 감동적인 추억이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

틈을 들여야 하고 시간을 벌어야 하리라. 착상메모를 활용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몇 시간이 지나 한 줄 써지면

다행이 아닌가. 전혀 써지지 않는 때도 있으니 이를 어찌랴.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글에 대해 경종을 주는 이야기를 간혹 지면에서 보게 된다. 문학계의 어느 선배는 신인들의 등단을 환영하나 염려가 된다고 말한다. 발효가 아직 되지 않은 글로 오히려 독자들을 책과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걱정한다. 옳은 말이다. 제맛이 나지 않는 글로 가까운 지면과 시간을 낭비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

글에서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연마해 왔던 일을 돌이켜 보면 대충대충 해온 나였던 것을 느낀다. 완숙한 발효가 되어 숙성이 되기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흠이 아니었을까. 기다리고 집중하는 슬기도 일종의 능력이다. 차분하게 공을 들여 생각해야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다. 몰입하는 습관에 따라 그곳에 더 큰 집념을 가진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집중하지 못한 얇은 생각으로 일을 그르치고 실패한 경우가 몇 번이었던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두뇌 활동과 글쓰기에 발효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사색의 발효가 충분하면 상상력과 집중력을 갖추게 되어 만족할 만한 좋은 글을 쓰게 될 것이다. 세상을 정화하는 데 좋은 글만큼 영향을 주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완성도가 낮은 이 고민이 고뇌로 이어지고 고뇌가 발효되어 글의 씨앗으로 자라나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북아현동 소녀

박찬성

경영68·수필가

아득한 옛날부터 모든 남성이 무의식 속에 지니고 있다는 여성상, 아니마 anima의 조화일까. 소년 시절 여행 중에 만난 푸른 눈의 시골 소녀가 80대 중반에 이른 스위스 정신의학자 칼 융의 기억 속에 기념비처럼 남아 있다는 회상이나, 또 그 옛날 남대문을 엿갈리어 지나가던 맞은 편 전차 칸에 언뜻 서로의 눈동자를 마주친 이름 모를 여학생이 정녕 잊혀지지 않노라던 이어령 선생의 라스트 인터뷰의 고백은 정말 아름답고도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갈래야 좀 다른 이야기지만 석학들이 토로한 알수 없는 기억의 완고한 지속성에 공명한 일개 범부에게겐 젊은 날의 한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대학 초년 시절 한때 나는 북아현동에서 하숙했다. 혼잣손으로 예닐곱 명의 하숙생들을 수발하던 아줌마는 종일 앓을 틈조차 없었지만 사십 대 후반의 주인아저씨는 밤낮 술에 절어 사는 골방지기였다. 가장의 체통이 꺾워진 집안의 공기는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처럼 황량했는데 적어도 나에게 그 스산한 풍경을 얼마간 누그러뜨려 준 것은 그 집 따님이었다. 발그레한 ‘여드름 꽃’이 곱게 핀 얼굴에 검은테 안경을 쓴 소녀는 쪽마루에서 독서를 즐기던 여고생이었다. 직장인 하숙생 아저씨들에게 나긋하던 소녀가 유독 내겐 웬지 거리를 두려는 심사가 엿보였다. 아침 일찍 수돗가에 칫솔을 입에 물고 세수하러 둘러선 아저씨들 사이에 있다가도 내가 나가면 살며시

자리를 피했고, 동네 골목에서 단둘이 마주칠 때에도 얼굴을 살짝 붉히며 종종걸음을 치곤 했다.

사실 칠 형제 집 막내로서 소녀와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나로 말하더라도 맘속에선 기이하고도 낯선 감성이 운행했던 것 같다. 그건 마치 에로스의 어췌죽지에 날개가 돌아날 즈음 느껴질 법한 그런 스멀거리는 알알함이었달까. 그런데 지척에 있던 소녀는 웬지 범접할 수 없는 석벽 끝에 핀 꽃망울로 보였다. 그저 혼잣속으로 한적한 뒷동산이나 동네 입구의 찻집에 마주앉은 모습을 그려 보곤 했다. 짐짓 외면만하던 소녀가 얼굴을 마주 대하기 시작할 즈음 나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하숙집을 떠나야 했다. 이삿짐을 들고 대문을 나서던 날 아줌마가 인사하라고 불렀지만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먼발치에서 자기 방 창문 너머로 나와 눈이 마주친 소녀는 얼굴을 커튼 뒤로 감추었다.

졸업반 시절 어느 봄날, 종로의 거리에서 나는 그녀와 해후했다. 대학 신입생 친구들과 걸어오던 그녀는 나를 보자 반색하며 다가왔다. 소녀티가 말끔히 가신 어엿한 숙녀의 모습이었다. 놀랍게도 얼굴엔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 처음 보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화사하지 않은 박꽃 같은 미소였다. 한때 바라던 실상이 불시에 눈앞에 현현한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한번 입학을 축하해 주겠노라는 손쉬운 화답도 입밖엔 내지



못한 둔한 입술에 어쭙게 돌아서던 그녀의 발길은
얼마나 허전하고 멧쩍었을까!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뒷모습과 덩그러니 남겨진 미소는 사위지 않는
기억으로 나의 맘속에 한 갈피를 차지했던 것 같다.

나는 이제 그 못갓춘마디 같은 결말의
소이연을 진솔히 술회함으로써 아주 오래된
마음의 짐을 덜고자 하는 것이다. 그 해프닝의
원인(遠因)을 따지자면 아마 고향 마을 앞 들판을
가로질러 서울을 오르내리던 중앙선 열차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소백산맥의 허리를 뚫고 허연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던 열차의 요란한 칙칙폭폭
소리는 소년에게 설화 같은 집안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아버지가 이끈 대가족이 서울로
이사하자마자 6.25를 만나 만이와는 생이별하고
석 달 만에 할아버지의 땅으로 귀소할 수 밖에
없었더라는 아릿한 사연을 품은 가족사였다.
엄마 등에 업혀서 피난 내려온 세 살배기 막내가
자신의 걸음걸이가 친구들과 다르다는 자의식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였다. 심한
경기(驚氣)를 한 후 한쪽 다리를 절던 소년은
포레들의 통학로인 신작로 길을 외면하고 그의
발걸음을 푸근히 감싸 준 산길로만 다녔다. 읍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넘나든
평구재에서 멀리 지나가는 상행 열차를 만날
때마다 염원을 실어 보냈다. 한때 도회를 향한
꿈을 부풀게 했던 열차는 십여 년을 아무 일

없다는 듯 무심히 오르내리며 무던히 기다릴 줄도
아는 소년을 만들어 갔던 것이리라.

생경한 서울의 아스팔트 거리는 종내 상경한
청년의 보조를 고향의 평구재만큼 감싸 줄 수도
감싸 줄 리도 없었다. 대도회 서울은 그렇게 정이
받은 공간이었다. 외려 자존감은 위축되고 그
빈 자리에 두려움이 진주했다. 즐겁던 캠퍼스
생활의 이면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웠다. 피카소의
청색시대의 색조같은 내면의 세계에 한 가닥
빛을 전해 주던 작은 촛불이 있었다. 북아현동
소녀였다. 왜 살갑게 다가서지 못했던 걸까. 그건
필시 가물거리던 촛불이 아예 꺼져 버리거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였겠지. 시골집 뒤란에
핀 소박한 박꽃 같은 누이의 미소도 그의 바다에
표류하다 사라진 한 송이 꽃이었을 터이다. 젊음의
열기가 한풀 가시기 전까지는 열등 콤플렉스의
파고가 높아 그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던
블랙홀이었으니까.

기억 속의 박꽃은 웬지 하루아침에 핀 꽃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시나브로 나의 마음
한구석으로 잦아들면 어김없이 떠오르던 숏보기
청년, 이제야 나는 그를 사면해 주기로 했다.
지금쯤은 노래(老來)의 그녀도 혹 어찌다 그때
일이 생각나면 고개를 끄덕이며 은근한 미소를
보낼 테니까

신록의 숲으로

김진하
상66·시인

신록의 숲으로 달려간다.
풍덩 하고 몸을 담근다.

삼림욕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때를 씻어낸다.
머리가 개운해진다.

숲속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려
마치 푸른 물감을 풀어놓은것 같다.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소리같은
맑고 투명한 새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다람쥐는 눈망울을 굴리면서 퐁닥거리고
연두색 자벌레는 발레를 하며 몸매를 자랑한다.

나는 신록에 스며들어 자연이 되어간다.
나의 몸은 나무가 되고 나의 영은 메아리가 된다.

인간은 원래 숲에서 태어나 숲으로 돌아간다.
숲은 위대한 생명의 둥지다.



참전한 동기생을 기리며



이득주 경영55

前)서울사세청 (現 서울지방국세청) 前)재무부 (現 재정경제부)에서 근무,
55학번 동기회장

1960년 월남전 참전한 친구를 찾습니다.

곽장섭은 1955년 상과대학 입학 동기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3년이 경과 한 후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됐다. 필자인 나는 2년이 지난 후 1955년에 대학에 입학했다. 생면 부지의 낯선 동급생들과 상업개론, 경영경제학, 부기(회계학 1부), 국어, 영어 등 경영대 기초과목을 함께했다. 곽장섭을 이때 처음 만나고 매일 강의 시간에는 꼭꼭 만나는 동기였다. 그러던 중 나는 1957년 입대하게 되어 학보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군 복무 1년이 지나 당시 1군 지역에 근무 중 토요일이면 종종 외박증을 가지고 나와 서울지역으로 나올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늦게 귀가 중 청량리 역전에서 한 장교(중위)를 만나게 되어 거수 경례를 했는데 그 장교는 ‘득주야’하며 부르는 것이었다. 딱 맞닥뜨려 가까워서 보니 상과대학 동기생인 곽장섭이었다. “득주야 고생이 많지?”하며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고 잠시 동안 우리는 악수하며 노상에 서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다. 당시 나는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 곽 동기는 통역장교로 월남파병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우리 Class Mate들은 영어 실력이 좋아 장교로 임관되면 통역 장교가 되는 시기였다. 아마 나도 장교를 지원했으면 통역장교가 됐을 것이다. 정답을 나눈 우리 둘은 헤어진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소식을 알 수 없었고 마음속으로만 복교하면 만나겠지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1959년 9월경, 1년 10개월 22일 만에 귀휴 명령으로 군복을 입은 채 복교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곽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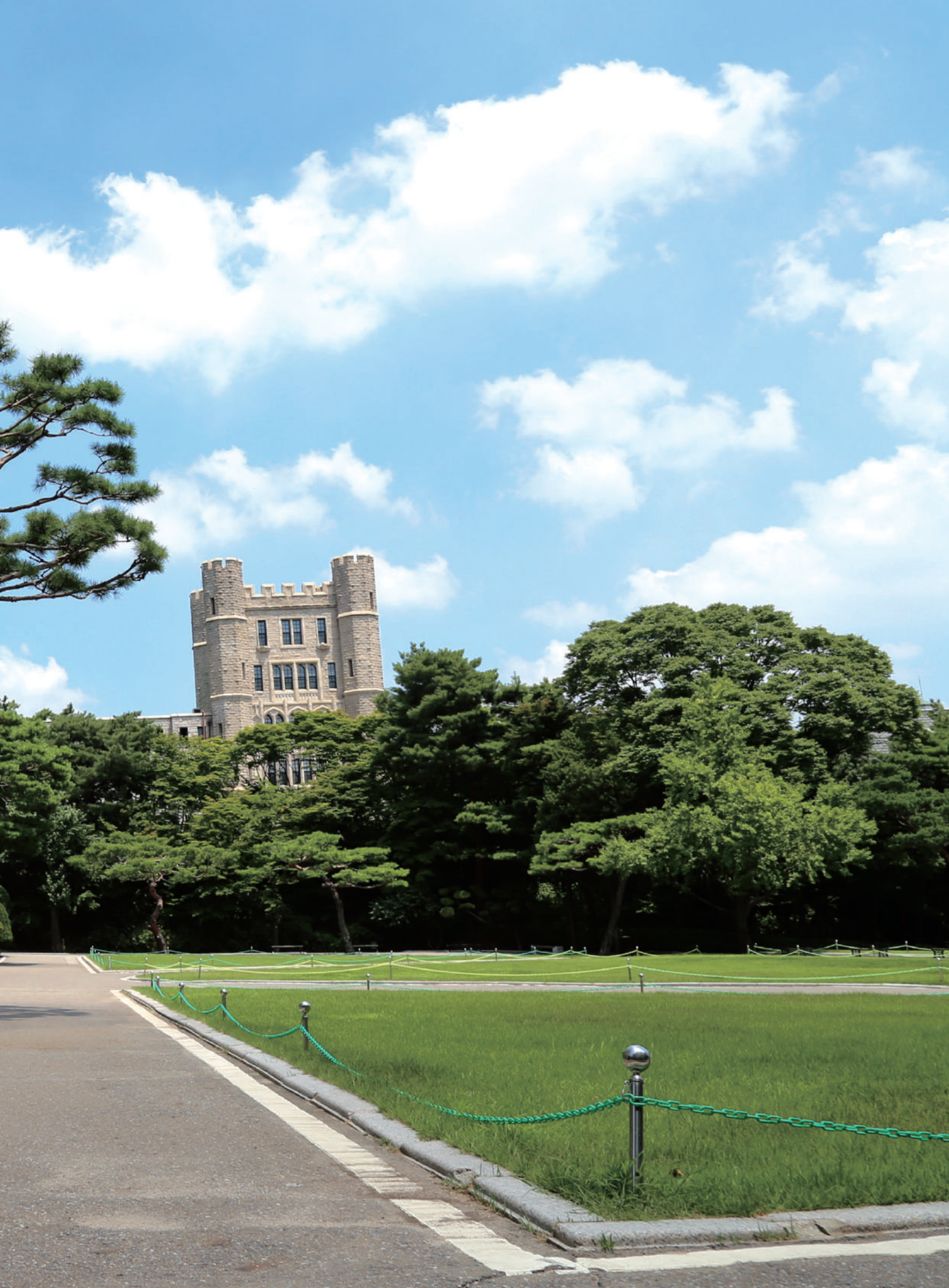
가 보이지 않았다. 수속을 마치고 기다려도 그는 영영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월남 땅에서 아마도 전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추측까지 하게 되었다. 이러는 사이에 몇 년이 지나도록 교정에서는 볼 수가 없었고 기다려 보아도 감감무소식이라 가슴이 답답하기 시작했다. 만약 제대해서 복교를 했다면 Class가 다르고 과목이 달라도 쉬는 시간에 스치면서, 교정에서 지나가면서 만났을 지도 모른다. 복교해서 다시 만났으면 전방 생활, 월남 생활, 월남 참전 상황 등 시시콜콜한 군 생활과 고생담을 서로 토로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련만, 우리에게 이 시간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또한 동기 박종일이 HID에 근무한다며, 학교에서 한번 만났는데 내가 2019년부터 약 5년 이상 동기회장직을 맡아 수행하는 현재까지도 영영 소식이 없으니 그도 역시 전지에서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현재 2024년 5월의 끝자락이고 현충일도 며칠 안 남았으니 두 사람이 그림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애통하고 애달프다. 유능한 청춘이 청운의 뜻을 펴지 못하고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이국에서 불귀의 객이 되었을 터이니 안타깝기만 하다.

그대여, 살아 있으면 직접 소식을 전해주기 바란다. 현충일이 가까워오니 더욱 형 생각이 난다. 착하고 유능한 청년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만나지는 못할망정 우리 조국 땅 어디에서 살아 숨 쉬고 생을 이어갔길 바란다. 살아있다면, 부디 잘 지내길 바라고 다시 만날 수 있길 기원한다.







56 회장 이연상 / 부회장 변동수

막수회 (경영56동기회 월례회) ●●●

우리 동기들이 수십 년간 걸친 모임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근래 들어 참석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 올해도 막수회 모임은 1월부터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달 모였는데 평균 참석인원이 월 6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난 5월 모임에는 8명이 참석해서 고무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우리가 춘천막수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된 동기는 집은 단층집으로 초라해 보이지만 당시 지식인, 정치인, 연예인, 시중의 명사들 다수가 찾는 맛집으로 소문난 집인데 우리 회원 중 변동수 동기가 명지대 교수로 재직 시 명지대 교수들이 모임을 갖던 장소로 우리 모임을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

고 모임의 이름도 '56 경영대 모임'에서 마지막 수요일에 모인다고 해서 '막수회'라는 애칭을 변동수 교수가 작명하고 그날 참석한 교우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수십 년간 막수회 모임이 지속돼왔던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모임을 갖는 56 경영대 교우회 정기총회는 재정이 충분해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막수회 모임에 재정지원을 해줄 때도 있었지만 근래는 수년 동안 회비를 받지 않고 회의를 이어온 56 경영대 교우회 총회는 재정이 빈약한 데에 비해 막수회 모임은 경비를 찬조하는 동기들이 많아 막수회에서 본회에 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역전 현상으로 세태가 변화했다.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재정지원도 많이 해주던 동기들이 여러 명 작고했거나 아직 생존해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와병중에 있어 모임에 참석 할 수 없는 동기도 많아 참석인원이 자꾸 줄어들어 안타깝다.

지금도 매월 빠지지 않고 참석해주는 동기들에게는 항상 한없는 고마움을 표하지만, 지금까지 참석을 하지 못했던 동기들도 이제 나이가 90세 전후가 되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의 후반기를 좀 더 보람되게 보내기 위해, 옛 벗들과의 만남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눌 수 있는 벗이 있다"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주기를 독려합니다.



막수회 모임

61 회장 이경순 / 총무 이채영

동기회 상반기 모임 개최 ●●●

동기회원들 전체가 모이는 2024년 상반기 모임을 5월 17일 12시 이경순 동기회장을 비롯하여 4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호선 논현역 앞 중식당 취영루에서 갖고, 회원들이 오랜만에 근황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5명의 여자동기인 김군자, 박진자, 박청자, 이부자, 최민자가 참석했다. 입학 당시 360명 동기들 중에 연락이 가능한 국내 거주 190명에게 연락을 했는데, 고령화와 질병들로 인하여 이번 모임에도 참석자 50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번 모임부터 참석회비는 무료로 하고 비용은 동기회 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동기회 상반기 모임에 참석한 여교우들

도암회 ●●●

졸업 후 여의도에 직장을 둔 동기들이 매월 셋째 금요일(3월 15일, 4월 19일) 63빌딩 옆 리버티빌딩 2층 하반에서 오후 1시에 김 실 회장 외 10여 명이 만나 오찬을 함께하고 있으며, 당일 오찬 비용은 회원들이 돌아가며 부담하고 있다.

도암회 초기 회원으로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여온 박광동 동기가 5월 1일 갑자기 별세했다. 졸업후에 HD그룹사에 입사하여, 여의도 대형 프로젝트를 원만히 수행하는 등 여러 그룹사들을 거치며 승승장구하다가 그룹증권사 고위 임원을 끝으로 퇴직한 후, 고령박씨 문중일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맡는 등, 퇴직 후에도 활발히 활동을 이어왔다. 당일도 기념사업회 일로 일행들과 전세버스로 대구를 다녀오던 길에, 휴게소에서 쓰러져 병원 이송 도중 별세했다.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에는 고인과 가까웠던 이명박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하는 등, 많은 동기회원들과 지인들이 고인의 갑작스런 별세를 아쉬워하며 애도를 표했다. 다시 한번 80이 넘는 우리들이 더욱 건강관리의 소중함과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 준비해야겠다고 느꼈다.



도암회

초암회(서초동 모임) ●●●

서초동 지역 동기들이 지하철 9호선 반포역 인근 산들해에서 홀수달 셋째 화요일(3월 19일, 5월 21일) 정기성 회장 외에 김성희, 박성현, 성규진, 성영일, 안희민, 양재광, 이복성, 전춘옥, 정의철, 조일규, 채규학, 최창규, 홍대우 등 15명이 만나 친목을 다지고 있다. 연초에 연회비를 걷어 오찬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다음 모임은 7월 16일에 가질 예정이다.



초암회

삼목회 ●●●

창립 시 30여 명의 회원으로 청계산 옛골에서 이준원 동기회장 제안으로 삼목회가 시작하였으나, 고령화와 질병 등으로 매년 참여 회원들이 감소하고 있다. 당초 등산 모임으로 시작하였으나 부상 위험이 있는 산 대신 평지 걷기로 바꿔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역부족이어서 10~15명이 매월 셋째 목요일 10시에 만나 서울 근교 둘레길을 걷고 있으며, 오찬 비용은 그때마다 찬조자가 있어 회원들의 미각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박인우 회장 외에 김경학, 김근도, 김병수, 김순구, 김승헌, 김택원, 민병직, 민병훈, 박무용, 박광옥, 박수죽, 박진자, 성영일, 윤종완, 이근태, 이경순, 이근창, 이완, 이원태, 이정남, 이채영, 전춘옥, 정무광, 정시균, 정홍진, 정희진, 최창규, 최민자, 하준기 등의 회원 중 매월 10명 내외의 회원이 동참하고 있다.



삼목회



이월회(양재동 모임) ●●●

작수달 둘째 월요일 낮 12시 30분에 양재역 9출구 앞 산들해 한정식에서 만나고 있다. 성영일 회장 외에 김윤장, 김순구, 김근도, 김승헌, 김우찬, 김지균, 김중흥, 박인우, 양재광, 왕규철, 이병우, 이복성, 이창웅, 이채영, 이준원, 정시균, 정희진, 채갑병 등 19명의 회원들 중 10명 내외가 참석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오찬 비용은 회원들이 순번으로 부담하고 있다. 4월 8일 모임에 이어 6월 1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월회

광암회(강남지역 모임) ●●●

홀수달 둘째 화요일 2시 교대역 앞 참배나무골에서 만나 훈제오리를 함께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이채영 회장 외에 김근도, 김길남, 김병수, 김순구, 김승헌, 김우찬, 김윤장, 김지균, 민병직, 박광옥, 박수죽, 박식의, 박인우, 성영일, 신남용, 양재광, 왕규철, 원용계, 이근태, 이근창, 이경순, 이병우, 이복성, 이완, 이정남, 이준웅, 이창웅, 장경작, 정시균, 정무광, 정홍진, 채갑병, 최 섭, 최창규, 하준기, 황인강 등의 회원 중 매회 15명 내외가 참석하고 있다. 다음 모임은 5월 동기회 전체 모임과 겹쳐서 쉬기로 하고, 7월 9일에 모이기로 했다.



광암회

청춘대학(실버학교) ●●●

매월 다음 달 모임 날짜를 정하고 만나서 맛난 음식을 즐긴 후,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각자의 근황을 털어놓고 은퇴 후의 즐거움과 맛집 순례 그리고 여행 등으로 여유를 찾고 있다. 4월 27일 신사동 통영마을, 5월 25일 신사동 청초수, 인사동 조금식당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백두산 북파 등정이 무산됨에 따라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춘대학

62 회장 정병화 / 총무 한상욱 / 감사 송기현

62학번동기회 전체 모임 ●●●

62학번동기회는 석가탄신일인 5월 15일, 일부는 10시 30분 청계산 옛골에 모여 약수터까지 산행을 즐기고 나머지 회원과 부인은 13시에 청계산장에 모여 갑진년 새해에 처음으로 반가운 모임을 가졌다. 소모임인 말수회, 요산회는 모임을 자주 가졌지만, 동기회 전체 모임은 금년 들어 처음 가지면서 아직 정정한 동기들의 모습을



동기회 전체모임

대하니 한층 즐거움이 더해졌다. 동기들과 부인 서른 세분이 모여 한우와 소주, 맥주, 막걸리를 즐기는 모습은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오전에 맑았던 날씨가 모임이 끝날 때쯤 많은 비가 쏟아져 헤어짐의 섭섭한 인사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모임을 마무리했다.

64 회장 안덕수 / 사무총장 · 재무총장 정원교

백수회 응봉산 걷기 (백수회장 : 지동직, 걷기대장 : 이경희) ●●●

- 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 참석자 : 김광수, 김현희, 박채길, 신준철, 유명식, 이경희, 이용규, 지동직

백수회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만나서 가까운 둘레길을 걸었는데 모처럼 개나리 만발한 응봉산을 올라서 노오란 개나리꽃 구경과 함께 독섬으로 내려가 살구꽃 만발한 공원을 지나 콩나물국밥에 모주를 마시면서 봄날을 보내곤 한다. 개나리 흐드러진 동산을 지나 봄 나절 아지랑이가 아른거리는 강변을 지날 때면 종달새 지저귀는 산골 고향 생각이 난다. 익어가는 청보리 모가지를 잘라 불에 그슬려 입주둥이 새까맣게 주워 먹던 밀, 보리서리하던 어린 날이 그리워진다. 봄날 오후에도 굽이쳐 넘실대며 유유히 흐르는 한강 변을 오늘도 걷고 또 걸었다.



응봉산에서

백수회 양재천 벚꽃길 걷기 ●●●

- 일시 : 2024년 4월 6일(토)
- 참석자 : 김광수, 김현희, 박명익, 박채길, 신준철, 유명식, 이석훈, 이용규, 지동직, 홍현묵

백수회 열 명은 봄철 꽃이 만개한 양재천을 금년에도 찾았다. 노랑 개나리꽃, 연분홍 벚꽃이 활짝 핀 양재천은 인파로 미어졌으며 누구든 갖가지 포즈로 사진 찍기 바빴고,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벚꽃은 가슴 터질 듯 부푼 마음, 설렘의 시작이었다. 멀리 벚꽃 놀이를 따로 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며 서울 근교에도 곳곳에 만발한 꽃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있었다. 해마다 찾는 꽃구경이려만 볼 때마다 새삼스럽게 우리를 안달나게 한다. 개울둑에는 꽃이 만발하고 냇물 속에는 잉어가 펄떡거리는 양재천의 물결을 넘실대고 속삭이며 흐르고 있었다.



양재천에서

64학번 입학 동기 과천 서울대공원 걷기 참가 ●●●

- 일시 : 2024년 4월 9일(화)
- 경영대 참석자 : 고병선, 김광수, 박채길, 신준철, 유명식, 이석훈

‘이화 열시’는 매월 두 번째 화요일 10시에 64학번 동기들이 과천 대공원에서 만나 월례 걷기와 점심을 먹는 날이다. 이번 모임도 우리 동기들은 꽃피는 4월의 꽃 대궐 특히 벚꽃과 각종 색의 튜립이 장관을 이룬 곳에서 이제껏 대공원 꽃구경 중 최고의 아름다운 만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개한 벚꽃 구경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목을 축이는 쉼터에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모임이고 유일하게 참석한 여학생 조봉금 부회장이 가져온 구운 계란은 따끈한 온기가 남아 있어서 고맙고 포근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소풍 온 부천 역곡중학교 학생 등을 포함해서 꽃구경 입장객들이 가득한 공원을 걸은 후 뒤풀이 점심으로 사당역 식당에서 막걸리 소주가 곁들여진 별미의 추어탕, 김치찌개로 포식하면서 끝날 것 같지 않은 대화가 계속되는 하루를 보냈다.

등산회 봄철 테마 등산 (등산회장 : 신준철, 등산대장 : 고병선) ●●●

- 일시 : 2024년 4월 27일(토)
- 참석자 : 강동식, 강용민, 고병선, 고충호, 권영기, 김귀분, 김광수, 김동훈, 김상규, 김원태, 김윤호, 김철주, 박채길, 박태웅, 손경식, 송병열, 송철호, 신준철, 안덕수, 유성준, 이강훈,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이정구, 이태경, 지동직, 최양섭, 홍현묵



봄철 테마 등산

상반기 테마 등산하는 날이다. 비교적 가까운 분당에서 중앙공원을 지나 분당천을 따라 율동공원으로 들어가 호수 둘레 길을 돌아보는 코스를 택해서 비교적 안전한 길이었다. 항상 만나던 우면산이 아니었으며 2017년 마지막 등산회 참가했던 김철주와 2019년 마지막 참가자던 손경식 등이 포함되어서인지 29명의 대부대가 형성된, 성황을 이룬 행사였다. 공원 곳곳에 붉은 철쭉이 만발해 있었고 호수에 솟구치는 분수가 시원하게 물을 뿜어 올리고 신록의 고원 숲길은 봄날이어서도 한낮에는 무더웠던 더위를 식혀주는 아늑한 길에서 오랜만에 조우한 동기들과 즐거운 대화가 무르익었다. 소고기 샤브샤브에 안주로 오겹살을 볼판에 구워 막걸리를 마시는 식사는 지난달 최양섭 회장이 식사비 부담에 이어 전달 약속한 대로 김윤호 회장이 무한 리필 식사비를 부담한 즐거운 회식이 됐다.

등산회 무장에 데크길 걷기 ●●●

- 일시 : 2024년 5월 25일(토)
- 참석자 : 강동식, 권영기, 김귀분, 고병선, 고충호, 김광수, 김덕명, 김동훈, 김상규, 김원태, 김윤호, 박명익, 박채길, 신준철,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이정구, 최종한, 홍현묵



우면산 무장에 데크길 위에서

남부터미널 5번 출구에서 기다리는 동기들에게 강동식 왕회장은 인사하면서 '하루견과'를 돌리고 있었다. 우면산 데크길은 무장에 숲길로 새로 단장해 예술의 전당을 휘돌아 가는 길로 힐체어로도 걸을 갈 수 있도록 만든 길이다. 그래서인지 경영64 산행은 23명이나 참가했다. 숲길은 녹음이 짙고 해가 구름 속에 가려서 숲길 걷기에 좋았고 새소리 쉼터에는 물까치, 박새, 곤줄박이, 동고비, 딱새, 평 등 20여 종의 새들이 관찰되어 수다를 늘어놓는다고 들어보고 가란다. 비교적 편안하게 걷는 길이라서 그날썹 쉼터에 빨리 도착했는데 몸살감기에도 사과를 깎아 보내주신 이하자 여사, 참외, 비트를 깎아 홍일점으로 참가하신 김귀분 교장 선생 덕에 한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이루어졌고 금년 들어 처음 참석한 유명식, 홍현묵을 포함한 아직도 허리 꺾은 80대 노익장들은 산행 후 주꾸미, 피자 정식에 맥주, 막걸리로 푸짐한 식사를 얼마 전 모친상 때 동기들이 애도, 위로에 대한 답례로 이석훈 동기가 사면서 3월 최양섭, 4월 김윤호 동기에 이어 등산 후 점심을 연속 대접하는 신기록을 남겼다.

68 회장 이차복 / 총무 김종윤

경영68동기회 임시총회 ●●●

5월 11일 30여 명이 등반대장 김완식 동기의 리드하에 대모산 둘레길의 계단과 흙길을 두 시간 걸었다. 이후 만찬 장소인 수서역 인근 대정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차복 동기를 신임 동기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회장은 2025년에는 68학번 입학동기회의 회장으로 개교 120주년 행사에 학번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임시총회 이후 미주지역 교우 5명을 단톡방에 초대하는 등 단톡방 인원이 배가되면서 동기회의 활성화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이차복 회장



김종윤 총무

경영대 교우회 상반기 골프대회에 4명 참석 ●●●

6월 13일 경영대 교우회 상반기 골프대회에 김대형, 김주희, 성지환, 이차복이 참석하여 어윤대 총장, 김동원 총장과 선후배 90명이 몽베르CC에서 교우의 정을 나누고 3시간에 걸친 만찬은 웃음꽃이 만발했다. 이차복 회장은 Out 43타, In 49타로 첫끗발상을 수상했다.



첫끗발상 수상한 이차복 회장

69 회장 이재선 / 제1총무 조현용 / 제2총무 이영식

스승의 날 행사 ●●●

미국에서 오랜만에 귀국한 안명규 전 LG전자 사장 초청으로 지 청 교수님 모시고 스승의날 모임을 가졌다. 69학번은 매년 스승님을 잘 모시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안명규 사장과 지 청 교수님의 수제자 전남대 명예교수 조 담 동기와 모임을 함께해서 더욱 지 교수님이 기뻐하셨다. 맹자의 君子有三樂 중, 제일 중요한것 得天下英才而教育之 三樂也다.



지 청 교수님과 함께

69석영회 정기총회 ●●●

69석영회(회장=이재선)는 6월 10일 역삼역 이규원 95동기회장이 대표인 이도곰탕에서 17명 참석한 가운데 2024 정기총회를 갖고 전기 재정수지 결과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그리고 제2안건인 회장 변경 건은 2014년 이래 이재선 회장이 내리 말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현용 제1총무가 수락하여 오래된 숙제를 해결했다. 이와 관련 이재선 전임 회장이 한턱내기로 하여 8월 21일(수) 이재선 전임 회장의 곤지암 농장에서 인수인계식 겸 바베큐파티를 하기로 했다. 한편 이영식 제2총무의 아들 암투병과 관련 참석자 전원 위로금을 걷어 즉석에서 100만 원을 모아 전달하고 단톡방에 공지한 바, 많은 동기들이 속속 추가로 동참했다.



석영회 정기총회



72 회장 최성진 / 총무 류병기

김문기 동기 추모행사 ●●●

봄기운이 화창한 4월 19일 경영대 72학번 35명이 경기도 연천군 통현리에 있는 김문기 동기의 산소를 찾아 추모식을 가졌다. 김문기 동기는 생전에 동기회 활성화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80명 동기들의 소재를 일일이 파악하여 사진을 첨부한 경영 72 동기회 수첩을 만들었고 동기회 총무를 10년 동안 하면서 동기회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한 덕에 여름, 가을 모임과 송년회에 60명이 넘게 참여하는 등 가장 활발한 동기회가 됐다. 추모식을 마치고 재인폭포에 들러 사진을 찍으면서 아름답게 살다 간 김문기 동기의 추억을 간직하는 하루를 보냈다.



김문기 동기를 추모하며

74 경영회장 장항덕 / 사무총장 구자형

경영74 4월 남산걷기 (남산클럽회장 : 한호석) ●●●

· 일시 : 2024년 4월 6일 (토)

아침에 대한극장 앞에 모여 장항덕 동기회장의 건배 제의로 경영74 남산모임을 산뜻하게 시작했다. 전체 74학번 동기회장인 조군환 회장의 덕담으로 동기모임이 더욱더 화해졌다. 오래간만에 참석한 김현기 동기가 반가웠고, 누구보다도 먼저 모친상에 문상해줘서 고맙다고 풍성한 식사를 하게 해준 이덕수 동기에게 감사드린다.



4월 남산걷기

경영74 5월 남산걷기 ●●●

· 일시 : 2024년 5월 4일 (토)

토요일 아침이다. 동기들 모두에게 추억어린 대한극장 앞에서 9시 30분에 만나 여느 때처럼 구자형 총장의 출발신호와 함께 정겨운 이야기들을 나누며 남산으로 향했다. 남산 한옥마을로 들어가 늘 우리가 앉아 사진을 찍는 너럭바위는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다. 오래간만에 참석한 동기가 반가웠으며 손주 돌보느라 바쁜 동기도 오랜만에 모임에 참석해주어 감사했다. 남산에서 맞이하는 봄의 꽃 향연은 눈 깜짝할 새에 가버리고 날씨는 어느덧 여름이 되었다. 이제는 만나면 거의 많은 화제가 건강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허리와 다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각자의 경험을 함께 나눴다. 남산 정상을 지나 내려가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꽃향기가 바람에 흩날려와 후각을 자극해 주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다. 국립극장 쪽에서 만난 동기와 남산 정상에서 만난 반가운 동기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서 흐뭇했다. 남산에서 내려와 늘 가던 냉면집에는 식당으로 바로 온 동기들과 함께 모두 42명이 3박 4일로 6월 2일 출발하는 입학50주년 기념 일본 홋카이도 여행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함께 이야기했다. 한호석 남산회장의 후원하에 남산모임이 늘 운영되는데 한 회장에게 항상 감사하고 이번 일본 여행에 장항덕 회장을 비롯한 여러



5월 남산걷기

전임 74동기회장들에게 감사하고 지난번 문상에 감사하며 본인의 칠순을 자축하여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준 우갑준 74수석부회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조군환 전체 74학번 동기회장의, 74학번 전체 동기들의 입학50주년'을 위한 건배 제의로 모임을 마쳤다.

경영74 고대인의 날 ●●●

· 일시 : 2024년 5월 5일 (일)

비 내리는 가운데 안암골에 위치한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모교 개교 119주년 및 고대인의 날에 참석했다. 특별히 올해는 120주년을 한해 앞둔 해로써 의미있는 행사였다. 더군다나 우리 학번은 7월 4일 입학50주년이라는 큰 행사를 갖는 해다. 모교는 WE ARE THE NEXT라는 가치아래 고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라고 생각된다. 120년의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120년의 새로운 영광을 준비합니다'라는 기운으로 새로운 세상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의 틀을 창출하기를 기원한다. 동기와 함께 개교기념 행사에 참석하니 더욱더 뜻깊은 하루였다.



고대인의 날 참석

경영74 입학 50주년 및 칠순 기념 홋카이도 여행 ●●●

· 6월 2일 (일) - 새벽 3시에 일어나 우유 한 잔에 토스트 1개를 먹고 4시쯤에 집사람이 태릉역 공항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어 4시 20분 첫차인 공항버스에 탑승하여 눈을 감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며 출발했다. 우리 동기들 42명이 입학50주년 기념으로 일본 홋카이도로 가는데 아무쪼록 즐겁게 아무 사고 없이 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동기들과 여행사 관계자, 가이드를 반갑게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거대 지구본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은 후 탑승수속을 마치고 홋카이도로 향했다. 2시간 40분 후에 항공기는 신치토세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대의 깔끔한



하코다테 하치만자카에서

대형버스 2대에 조별로 나누어 타고 첫 번째 행선지인 오타루로 향했다. 오타루에서 현지식으로 이면수 정식을 시장하던 차에 맛있게 먹고 오타루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오타루 운하를 둘러본 뒤 유리 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기타이찌 가라스관과 오르골 전시관인 오타루 오르골당을 주마간산식으로 간단히 봤다. 이후 동기들 몇몇과 함께 어느 조그만 식당에 들어가 홋카이도 생맥주 한잔에 초밥과 게살 등을 안주로 하여 시원하고 가볍게 마시면서 홋카이도 여행의 시작을 고했다. 오타루를 떠나 조잔케이 호텔에 도착하여 2인 1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다. 뷔페식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 근처를 30여 분 거닐다가 온천에 들어가 몸을 담그니 새벽부터 여행 떠나기 위해 바빠 움직였던 누적된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다.

· 6월 3일 (월) - 호텔 조식후 2시간의 거리에 있는 도야로 향했다. 홋카이도 최대호수인 도야호수와 근처 화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로 전망대에서 도야호, 우스산 전망을 둘러보고 도야호수에서 약 50분간 유람선을 타는 동안 동기들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갈매기들, 까마귀들과 함께 삼삼오오 사진 찍으며 시간을 보냈다. 이후 1943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기생 활화산인 쇼와신잔을 둘러보는데 지금도 연기가 나는 것이 신기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하코다테로 이동했다. 하코다테는 일본에서 제일 먼저 개항한 곳으로 이곳 모토마치 언덕 중 유일하게 바다를 볼 수 있으며 영화 러브레터 촬영지로 유명한 하치만자카 언덕, 1913년에 영국영사관으로 사용되었던 하코다테시 구 영국영사관과 대표적 역사 건물인 구 하코다테 공회당을 둘러보고 왕복 로프웨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 비가 내려 흐린 하코다테 전경을 즐겼다. 이후 일본식 호텔인 유노카와쇼엔 호텔에서 저녁으로 게 요리를 푸짐하게 먹고 온천욕으로 피곤함을 달래고 주변을 걸었다.



· **6월 4일 (화)** - 아침 식사 후 하코다테 인근 시카베로 이동하여 2018년 북해도 유산으로 선정된 족욕 체험 등 시카베 간헐천 공원을 관광했다. 다시 오오누마로 이동하여 일본 도립공원으로 독특한 오오누마 국정공원을 둘러본 뒤 단체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2시간 훨씬 넘는 장거리 버스를 타고 노보리베츠로 이동, 수증기와 강한 유황 냄새를 맡으며 노보리베츠의 신비로운 지옥계곡을 관람을 하였고 마지막 행선지인 삿포로로 향했다. 삿포로의 랜드마크인 삿포로 시계탑을 간단히 본 뒤 지하상가에 위치한 약국에 들러 딸이 부탁한 약을 사고 마지막 숙박지인 삿포로 도큐레이호텔에 도착했다. 저녁으로는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계를 배불리 먹고 비가 오는 삿포로에서 몇몇 동기들과 함께 어느 작은 선물집에 들러 여행 마지막 날의 아쉬움을 달랬다.

· **6월 5일 (수)** - 호텔조식후 면세점을 방문하여 각자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수속을 마친 뒤 3시간 넘게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여행을 함께 한 동기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 집으로 향했다. 이번 경영74 입학50주년 기념 일본 홋카이도 여행은 즐겁고 재미있는 아름다운 여행이었다.

76 회장 장영린 / 총무 김덕만

경영76 산우회 소식 (산우회장 : 손봉원) ●●●

금년 경영76산우회는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며 등산보다 편안하게 걸으면서 주변 역사 유적지 등도 답사하고 동기 간 우정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북한산 둘레길 21구간(71.5km)을 완주하며 봄, 가을 특별산행도 함께 하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특별산행으로 2024년 2월 1일~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7명이 제주도 한라산 눈꽃산행에 도전하여 관음사에서 성판악까지 약 9시간이 소요되는 긴 겨울 산행을 모두 안전하게 완주했다. 2월부터는 북한산 둘레길 1구간을 시작으로 매월 2구간씩 걸어 5월 말 현재 8구간까지 걸었으며 연말까지 21구간을 모두 완주할 계획이다.

(사진: 2024년 2월 2일(금),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서) (왼쪽부터 임완순, 정희식, 소병민, 박창호, 류만우, 한호림, 손봉원)



제주 한라산 특별산행

경영76 한국 골프계의 큰 손, 경영76의 두 동기 ●●●

총상금 12억 원으로 국내 여자 골프대회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DB그룹 제3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가 6월 13일(목)부터 6월 16일(일)까지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CC에서 개최됐다. 총 132명의 선수가 우승 상금 3억 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 마지막 날 시상식에서 주최사인 DB그룹을 대표하여 DB INC. 문덕식 대표이사가 데일리 베스트 스코어를 기록한 배소현 선수에게 상품을 시상했다. 주관사인 대한골프협회(KGA) 강형모 회장이 우승자인 노승희 선수에게 우승 트로피를 시상했다. 시상자인 문덕식 대표이사와 강형모 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76학번 동기이고 우승자 노승희 선수는 고려대 재학생이어서 이번 대회 시상식은 고대 가족 잔치 같은 훈훈함과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문덕식 대표이사

강형모 회장

4월 정기모임 ●●●

- 일시 : 2024년 4월 15일(월)
- 장소 : 서초동 그루터기

매화, 목련,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에 이어 벚꽃이 한창 뿔내고 들어가고 본격적인 봄 냄새가 물씬 나는 오늘, 42명의 동기들이 약속 시간이 되기도 전에 만식을 채웠다. 남도 바다의 향이 짙게 밴 음식들로 그득하게 차려진 테이블 위에서 막걸리가 게 눈 감추듯 사라져가면서 술잔들이 부딪쳤다. 개회사에 나선 이상현 회장은 “동기들의 건강과 우정과 사랑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외쳤고, 동기회의 새로운 사업으로 후배를 위한 장학사업을 위해 장학회 구상을 발표했다. 이 모임을 위해 일본에서 건너온 손영태는 장학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동기들의 일본 여행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이번 달 마지막 토요일에 아들 결혼식을 앞둔 성환태는 동기들을 위한 뒤풀이 장소를 따로 제공할 것임을 알렸다.

소모임 회장들도 나와서 간단한 인사를 했는데, 축구회(서종산 회장)에서는 5월 25일에 있는 가족 체육대회를 공지하며 참여를 유도했고 산악회(장덕윤 회장)에서는 지난 3월의 울릉도·독도 여행 후기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담담하게 담아냈다. 당구회(이성훈 회장)에서는 4월 20일에 있는 교우회장배 교우 당구대회를 알리며 기량을 갈고닦은 동기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으며, 문화회(허만길 회장)에서는 영혼의 안식을 위한 문화 체험을 위해 음악 전공한 가족의 참석과 연극관람 등에 관하여 공지했다. 취기가 올라 목소리는 커져가고 근황과 안부를 묻는 담소가 서서히 정리되면서 마지막 건배사를 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고대 경영9!! 우주 최강!”



4월 정기모임

5월 정기산행 후기 ●●●

- 일시 : 2024년 5월 24일(금)

아침 일찍 강남역 ‘국밥쟁이’에서 소식을 마치자마자 출발하여 소백산 삼가탐방센터에 도착하여 들머리로 삼아 산행을 시작하여 비로봉(1,439m)을 찍고, 기나긴 하산길을 따라 천동계곡 탐방센터를 날머리로 하여 13km, 6시간 반에 걸쳐 산행을 했다. 미국에서 오랜만에 귀국하여 산행에 합류한 강영수(55년생) 學兄의 참석으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어렵고 힘든 산행이었지만 모두 안전하게 복귀하였음에 감사한다. 산행에 완등하지 못한 김정태, 오성호, 양희창은 영주에서 와준 이재욱의 도움으로 3도(경북, 충북, 강원)를 넘나들며 유명한 평양냉면을 먹고 소수서원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을 둘러보았다. 또한 김삿갓 유적지와 묘소가 있는 곳에 들러 각종 시비들을 둘러보고, 오후에 도착한 이성훈, 서유창과 함께 서유창의 동생들이 스님으로 있는 천태종의 본산 구인사(救仁寺)를 구경했다. 다섯시 반께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양상문의 자택에 모두 모였다. 넓은 마당과 텃밭으로 가꾼 2층 자택은 자연을 병풍 삼아 좋은 공기와 어우러져 멋진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양상문 부부와 장모님, 경주에서 온 정재연 부부의 준비로 한우구이, 각종 채소, 막걸리와 장덕윤이 준비한 생강주, 블루베리주, 마늘주 등으로 취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또한 이재욱이 준비해온 문어숙회는 영주가 본산이라 하여 특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해는 이미 떨어지고 없는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젊은 시절의 캠프파이어를 연상하며 즐기다가 저녁 8시께 귀경길을 잡아 서울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가까웠다.

이재욱이 준비해준 영주 태극당의 카스테라 인절미를 하나씩 손에 들고 귀가하며 친구들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유쾌하게 보냈음에 감사드린다. 특히 양상문의 장모님께서 끓여주신 된장국은 동기들 모두가 칭송하였고, 그 그윽한 솜씨의 맛에 더욱 감사드린다.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산악회 집행부의 노고에 더더욱 감사드린다.



산행 후 뒤풀이 모임



KUFC79(축구모임) 가족체육대회 ●●●

- 일시 : 2024년 5월 25일(토)
- 장소 : 고양시 소재 웨릭스체육시설내 풋살장

매년 이어지는 가족체육대회가 올해 5월의 따스한 봄날에 이루어졌다. KUFC79 회원들과 부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의 3대가 함께 어우러져 초록의 잔디와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뛰놀자는 서종산 회장의 개최 인사와 이상현 총회장의 축하 인사에 이어 이영태 사무총장의 대회 개요와 진행방식 등의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족구 게임을 4개 팀으로 나누어 가족별로 묶어서 인원을 고루 분할하여 진행했다. 여성 가족(부인, 딸, 며느리)들의 패널티킥 차기로 시구와 연습구, 본 게임에 이르기까지 모처럼 웃고 즐기는 타임이 됐다. 조별 홀라후프는 남녀 3인씩 경쟁을 붙였는데 역시 여성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좋은 기량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축구 경기에서는 역시 젊은 아들과 사위들이 주축이 되어 멋진 경기가 진행됐다. 체력에 뒤지는 우리 동기들은 그나마 수비에 급급한 상황. 대회를 마무리하고 정읍 한우식당에서 한우 바베큐를 굽고 소주와 맥주잔을 부딪치며 행복에 도취했고 이종훈 대회협력부장의 사회로 재치와 웃음의 년센스 게임을 진행하며 상품권을 살포하기도 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행복한 시간을 함께한 우리는 또다시 함께할 시간을 기다리며 아쉬운 짧은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특이사항으로는 미국 뉴저지에서 AICPA로 활동 중인 강영수 學兄과 이한백 부부(이상현 동기 아들 내외, 캠브리지 대학 부부교수)가 참석하여 자리가 한껏 빛났다. 즐거운 행사를 위해 불참하면서도 후원한 동기들(민경섭50, 양희창30, 유순근10, 박재준10)께 감사드린다. 또 참석과 함께 후원한 동기들(이상현100, 서종산100, 김용상40, 김택곤30, 박병근30, 정춘돌30, 이청기20)께도 감사드린다.



가족체육대회

KUPGA79 춘계골프대회 ●●●

- 일시 : 2024년 5월 26일(금)

우천의 예보에도 28명의 俱樂部 회원이 모인 장소는 KUPGA79의 영원한 전당인 일동레이크CC(운악산과 원통산의 바위 등줄기를 끼고 일동 포천 분지에 자리 잡은 1995년 개장한 명문 구장) 골프장에 한때 품미한 北—南華란 화두를 아직도 최상의 코스이며 관리 그리고 주인장을 닮은 품격 있는 서비스로 北一品을 유지하는 구장. 1973년 국내 최초의 아시안 서킷 필리핀 오픈 우승자인 골퍼 겸 구장 설계자 김학영씨가 일괄 설계 및 감수까지 한 국내 몇 안되는 TPC급 골프장으로 주변 지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이 녹아있다. 嶽山의 묻혀있는 화강암을 노두로 활용한 높은 면의 방벽과 넓은 페어웨이의 건너편 언덕 능선을 조화롭게 품은 코스와 7개의 연못이 크릭과 브릿지, 폭포, 물레방아를 구성하며 11개 홀을 감싸 도는 설계는 P.Dye가 설계한 서양식 자연미를 추구하며 난이한 코스를 자랑하며 코오롱 우정힐스CC와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대부분의 홀이 Tee박스에서 그린에 보이거나 짐작이 가능한 직선 홀 빼대를 기본으로 하며 홀의 위치에 따른 UP&DOWN과 완만한 Dog Leg(굽커브)홀로 구성되어있다. 6개 홀이 南北向 배치이며 #11홀은 가장자리에서 파3 #13홀만 동서배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높은 위도와 고도에 따른 채광과 주변 준령들의 풍광을 코스 뒷배경으로 삼으려는 의도적 배치로 생각이 들며 특히 사계절 내내 라운딩을 마치고 19번 홀에서 바라보는 한복정맥의 고산 능선과 서편 저너머 아스라이 보이는 소요, 감악산 봉우리 아래를 감싸는 구름안개나 석양은 도전과 보상을 위해 18홀을 지나는 플레이어들에게 한잔의 맥주와 함께 仙界를 감상할 수 있는 최상의 보상이다. 특히 KUPGA79 구락부 회원들은 신 회장의 배려로 仙界 위의 노천 테라스에서 항상 19홀의 美食과 和談과 酒香을 맛볼 수 있는 天堂에 머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일동레이크는 홀마다 아름다움과 김학영 설계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나무랄 데 없는 구성으로 18홀을 이루지만 골퍼들의 영원한 화두인 FAR & SURE를 각인시켜주는 라운딩을 하게 한다.



춘계 골프대회

이번 일동레이크 춘계대회는 동기 28명의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열띤 플레이로 좋은 스코어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타이틀 로고볼을 넉넉히 선사해준 정춘돌 프로 덕분에 경영79의 소속감과 일체감이 더욱 고조 되었고 저녁 만찬에 경영79동기회 이상현 회장과 오성호 총장이 참석해주어서 더욱 자리가 빛나고 흥겨웠다. 더욱이 이상현 회장의 특별후원금 100만 원은 KUPGA79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회장에게 감사를 표한다. 2024 춘계대회 공식기록에서 우승은 메달을 놓친 영원한 top golfer 양상문 프로(신페리오기)이며, 영광의 최저타 메달리스트는 일동의 터줏대감 신동익 프로로 78타를 기록했으며, 롱기스트는 이종훈 프로(240m), 니어리스트는 서종산 프로(1.5m), 다보기는 김정태 프로, 행운상은 한상린 프로가 차지 했다.

이번도 구장 부킹 및 화천댐 자연산 민물장어, 밀양 대나무 죽순을 비롯한 각종 뷔페 요리와 풍성한 이탈리아 와인과 함께 만찬을 선사해준 신동익 회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기타 연주와 싱어롱 타임의 노고를 해주신 김정태 회장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현장의 순간을 예술적 경지로 승화시켜준 안 작가의 봉사에도 고마움을 표한다.

80 회장 권현준 / 총무 하만우

전체모임 - 봄 आय회 ●●●

80학번은 전체 모임으로 봄 आय회와 가을 음악회, 연초 또는 연말 모임 등 3번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2월 2일 전체 모임을 갖고 신·구 임원진 신고를 마친데 이어 5월 11일(토)에 부부 16팀을 포함해 총 46명이 참가하여 봄 आय회를 즐겼다. 걷기 좋은 길로 유명한 횡성호수길(8km)을 걷고, 근처 더덕 전문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새로이 떠오르는 원주 섬강 자작나무숲(4km)을 걸으면서 건강과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나눴다. 임원진들이 정성껏 준비하고, 많은 동기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준 덕분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행사가 거듭될수록 얼굴도 익히고 많은 추억을 공유하게 된 어부인들께서도 우리 모임을 즐기며 더욱 돈독한 관계들을 맺어 나가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됐다. 가을 음악회 행사를 기대하면서 뜻깊은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



봄 आय회

호산회(경영80 산악회) ●●●

· 불암산 등산 (4월 13일)

80학번은 매월 둘째 토요일에 등산 모임인 호산회의 산행이 있다. 4월 산행지는 불암산이다.(5월은 전체 봄 आय회와 통합) 호산회 행사로는 처음 가보는 산인데, 정상부에 있는 큰 바위가 부처를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고 한다. 불암산은 서울을 등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에 관한 전설에 의하면 금강산에 있던 불암산이 조선의 도움지로 한양이 정해지는 것을 알고 한양으로 오는데 이미 한양에는 남산이 떡 자리 잡고 있어서 실망하여 돌아가려다 주저앉다 보니 서울을 등지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화창한 날씨가 곧 여름이 올 것 같은 분위기다. 아직 꽃도 다 피지 못했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갑자기 한꺼번에 꽃들이 필 것 같았다. 상계역 1번 출구로 가니 늘 그렇듯이 약속 시간보다 다들 일찍 도착해서 정겹게 인사하며 안부를 물었다. 몸살감기로 힘들어 오던 길



호산회



을 다시 돌아간 박상협 회장, 그리고 술기운에 자전거를 타고 육교를 올라가려다 부상을 당한 하행민은 불참했다.

상계역을 출발해서 불암산으로 접어들니 초반부터 경사가 있었다. 어느 정도 경사를 오르면 평지가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계속 오르막으로 가니 피로감이 빨리 찾아왔다. 초입 부분 체육시설 옆 정자에서 잠시 쉬는 동안 김 건 동기가 '뽕따'아이스크림을 나눠줘서 먹는데 날이 더워서인지 참 맛있었다.

정상으로 향하는 내내 경사가 꽤 있는 코스로 갔다. 호흡도 가쁘고 땀을 많이 흘려 반팔 상의를 준비한 친구들이 좋아 보였다. 특히 정상 부근은 경사가 더 가파른데 등산객들이 몰려들어 복잡했다. 거북바위, 두꺼비 바위도 보며 정상 부근의 계단을 몇 번 쉬었다 갈 정도로 힘들게 올라가니 정상에 큰 바위가 태극기를 펴려있으며 반겼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잠시 호흡을 조절하며 밧줄을 잡고 정상 바위 위에 올라 기념사진 몇 장 찍고 내려와 아래쪽 평상에 자리 잡고 권현준 동기회장이 준비한 김밥을 포함해서 사과, 참외, 반시, 구기자차, 커피 등 다양하게 먹다 보니 배가 많이 불러왔다.

하산길은 화랑대역을 향해 전체적으로 내리막길이었는데 거리가 제법 길어서 조금만 더 가면 끝이 오겠지 하는 기대를 넘어서는 거리여서 더 힘들게 느껴졌다. 대신에 뒤로 처진 동기들은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며 동기간 우애를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 뒤풀이 식당에 도착해서 주류파와 비주류파로 나뉘어 감자탕과 칼국수를 삶아 먹으며 베트남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이창우 동기의 베트남 한 달 살아보기 여행기를 들었다. 뒤풀이를 마치고 술이 부족한 주당파들은 화랑대역 앞에서 생맥주 한 잔 더 하고 무사히 집으로 속속 도착했다고 한다.

골프회 모임 ●●●

· 4월 2일(화) 골프 모임

80학번 골프 모임은 매월 첫째 화요일에 청평 마이다스밸리에서 5팀이 모여 친선을 다지고 있는데, 4, 6, 9, 11월은 동기들 모임으로, 나머지는 부부 모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4월 2일에는 올해 첫 골프 모임을 갖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친선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운동 후 저녁식사는 세종에서 '베어트리 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이선용 동기가 제공했다.



4월 골프모임

· 6월 4일(화) 골프 모임

6월 4일 골프 모임은 최근 보기 힘들 정도로 화창한 날씨와 미세 먼지가 거의 없는 상쾌함 속에서 즐거움과 우정을 느낀 하루였다. 골프는 스코어만 빼면 다 좋다는 누군가의 얘기가 생각나지만 77타로 메달리스트가 된 이봉기, 신창윤 프로, 신페리오 우승을 한 정백조 프로뿐 아니라 스코어와 관계없이 좋은 동기들과 함께 즐긴 시간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될 하루였다.



6월 골프모임

지역 소모임 ●●●

80학번은 전임 임원진 때부터 지역 소모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금용권 · 대기업 근무 동기들이 중심이 된 일수회(매월 첫째 수요일), 중견업 근무 동기들이 중심이 된 수삼회(매월 셋째 수요일)가 10년 이상 점심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분당 거주 동기들의 자발적 산행 모임인 화사회(매월 넷째 화요일)도 3년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고양 거주 동기들도 최근 들어 고양 화사회를 시작했다. 앞으로 여의도, 강남 등 지역 중심의 소모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3월 16일 분당 화사회

3월 화사회 모임은 신춘을 맞이하여 광양 매화 및 구례 산수유 축제에 참가했다. 거리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도움을 받았고 화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일자를 잡았다. 광양 홍쌍리 매화축제 현장은 예상보다 다양한 동산과 돌담길 등을 조합하여 대규모로 조성되었고 홍매화와 백매화 아래에서 파전과 동동주를 마실 땐 마치 도원결의를 하는 것처럼 호기도 부렸다. 구례 산수유도 접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멋졌고 무엇보다 남녘에서 먼저 봄을 맞이할 수 있어서 흐뭇했다.



3월 화사회

· 4월 23일 분당 화사회

4월에는 평촌에 사는 김우영 동기의 안내로 의왕 모락산(385m)으로 올랐다. 모락산은 안양시가 아닌 의왕시에 소재하는 산으로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이 둘째 형인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충격을 받아 이 산에 올라 한양(락)을 사모했다고 해서 모락산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유래가 그럴듯했다. 날씨가 좋아 정상에 오르니 멀리 관악산, 삼성산, 수락산 및 왕송 저수지 등을 볼 수 있었다. 뒤풀이는 김우영의 안내로 안양 농수산물시장 회 센터에서 주꾸미 사브샤브와 싱싱한 회로 마무리했다.



4월 화사회

· 5월 28일 분당 화사회

5월에는 수도권 남부에 소재하는데도 그동안 가보지 못한 경기 광주의 문형산에 올랐다. 이틀 전에 비가 와서 날씨는 아주 쾌청했고 시야도 아주 좋아 북쪽으로 북한산, 도봉산, 천마산 등을 볼 수 있어 호연지기와 동기애를 다질 수 있었다. 매월 넷째 화요일에 모이는 화사회의 모토는 '제2의 인생을 화사하게, 멋지게'이다.



5월 화사회

· 3월 21일 고양 모임

3월 21일(목)에는 전임 하행민 총무 주관으로 그간 소원했던 고양 모임을 재개했다. 그동안 변화가 조금 있었다. 염찬엽 동기는 용인으로 이사갔고 죽전에 살던 도근우 동기가 새로이 전입했다. 이창우 동기는 베트남 나트랑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중이고 전익표 동기는 귀농을 위해 고창에서 교육받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교육 마치고 잠시 고양으로 올 예정이어서 모임 때 잠시 와서 눈을 맞추고 갈 예정이다. 버스로 두 시간 소요되는 분당에서 하만우 총장이 와서 깜짝 놀랐다. 고양시 동기들은 동기회 전체 모임에 잘 나가진 않아도 소모임엔 다들 진심이다. 대학 졸업 후 처음 만나는 도근우 동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갔다. 미국과 일본 유학 생활, 석사장교, 월드컵 타이와의 축구 응원을 곁들이며,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하만우 동기 사무총장을 전송하고 마치려는데 김태술 동기로부터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전화가 왔다. 이윽고 태술이가 등장했다. 아들이 팔 골절로 수술-입원 후 퇴원시킨 후 늦게 왔다고 한다. 태술이랑 다들 한 번씩 포옹 후 근우와 태술이는 태술이 차로, 동기들은 각자 버스, 지하철로 귀가했다. 몇 달 뒤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몇몇 동기들은 분당 동기들처럼 매달 네 번째 화요일 고양시 걷기 모임을 하기로 했다.



고양모임



· 5월 28일 고양 화사회

3월 21일 고양 모임에서 약속한 대로 4월 23일에 고양 화사회 모임을 가졌다. 5명의 동기가 참석했지만 아쉽게도 사진이 모두 사라졌다. 5월 28일에 두 번째 고양 화사회를 가졌다. 지난번보다 두 명이 줄어 도근우, 이원규, 하행민 세 명이 강매역-봉대산-강매석교 공원-지리산 어탕국수-행주산성 코스를 두 시간 걸어 마무리했다. 한강을 바라보며 창릉천을 거닐며 유채꽃 황화 코스모스가 가득한 공원, 소풍 나온 유치원생이 반겨주어 떠나는 봄을 전송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오랜만에 방문한 지리산 어탕국수도 변함없이 맛났다. 세 번째 화사회에는 이천에서 농사로 바쁜 태술, 허리가 조금 아픈 선규, 오늘 알바와 전직 동료와의 모임으로 참가하지 못한 창우, 수희의 참가를 기대해본다.



고양 화사회

· 6월 5일(수) 일수회 점심 모임

80학번 소모임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일수회가 6월 5일(수) 북창동의 메밀국수 맛집 송옥에서 점심 모임을 가졌다. 단골 멤버인 임보혁, 박형준, 김현우 동기는 개인 사정으로 빠졌지만, 박재환 동기가 오랜만에 참석했고 고용부 출신으로 고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인 이수영 동기가 참석해서 연금 투자 관련 강의를 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점심 모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진을 찍지 않는데 이번에는 호상지 소식에 올리기 위해 사진을 남긴다.



6월 일수회

84 경영화장 류기홍 / 경영총무 이순규

경영84 골프모임 ●●●

84학번은 4월 28일 여주CC에서 올해 첫 골프회를 실시했다. 참석 인원은 경영대학 16명, 84학번 타 학과 4명을 포함 20명. 문상철 동기는 이날 이종우 골프회장의 의뢰로 밴드에 올린 모임 후기에서 1) 날씨도 너무 좋았고, 구장이 평온하면서 특히 그린 상태가 매우 좋았고, 2) 운동 끝나고 먹는 재미가 중요한데, 만찬으로 나온 짬뽕 갈비를 참석자가 모두 만족하여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으며, 3) 동반자가 모두 즐거워야 하는데, 운동 후 식사 자리에 분위기를 보니 모두 즐겁게 라운딩한 것 같다고 이날 골프회를 평가했다. 신임 이종우 골프회장의 적극적인 역할로 9월 10일 골프회는 더 성황을 이룰 것을 기대한다.



골프모임

경영84 트레킹 ●●●

5월 19일 84학번 등산은 트레킹의 난이도로 진행되었다. 김준범 산악회장은 매주마다 등산하는 산악 마니아인데, 이날 트레킹을 위해 사전 답사까지 했다. 코스는 독립문광장-서대문형무소 역사



메타세쿼이아길에서

관-자락길전망대-연희숲속쉼터-메타세쿼이아길-숲속무대-무악정-무악산 동봉수대-능안정-서대문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서대문 독립공원으로 8.5km를 4시간이 소요되는 난이도 下의 코스를 트레킹 했다. 김준범 산악회장을 제외하고는 서울시민이면서도 처음 걸어보는 코스인데 나중에 밴드에 올라온 후기와 사진을 본 교우들은 '서울에도 이런 코스가 있구나'라는 반응이다. 김준범 산악회장은 동기들의 연식과 관절 상태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트레킹 수준의 코스로 산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영84 강남회 ●●●

5월 22일 강남에 직장이나 집이 있는 교우들의 모임인 팔사랑 강남회 모임이 있었다. 와인 동호회에 가입하여 한참 와인의 맛과 재미에 빠진 박태영 강남회장은 '빠놀'과 'CEO' 와인 5병을 가져왔는데, 참석자 10명에 딱 맞는 맛과 양이었다. 이후에는 류기홍 회장이 가져온 위스키로 마무리했다. 모임 장소는 10명이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 지방방송과 중앙방송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기분이 좋아진 남택진 동기는 이날 만찬 비용을 찬조했고, 모여진 회비는 전액 팔사랑 기금이 됐다. 이어서 이정근 동기가 후원한 아이스크림으로 2차 모임을 마무리하고 평소보다 늦은 21시 30분에 모임을 끝냈다. 정용태와 김홍석 동기 등은 밴드 후기 댓글에 "평소보다 늦은 21시 30분에 헤어지는... 이런 모임 너무 좋아요"라고 남겨 벌써 다음 모임이 기대된다.



강남회 모임

809 회장 정경모(경영86) / 총무 최윤석(무역87)

809 베어트리파크 오픈 골프대회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809모임(회장=정경모 · 경영86)은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포천의 몽베르CC에서 10개 팀 40명의 809 회원들과 909, 009 후배들이 참여하여 라운딩을 즐기면서 선후배 간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본 대회는 809 초대 회장인 이선용(경영80) 전 회장의 후배 사랑의 마음을 모아 메인으로 후원하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전통 있는 대회이다. 신페리오방식으로 개최되었던 이 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은 임동배(경영85) 회원이 차지했다.



골프대회

본 대회는 809 골프회(회장=문호규 · 경영86)에서 주관하면서 풍성한 후원 속에 골프총무(이정환 · 경영89)의 재미있는 사회로 다양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준우승은 구승희(경영82), 메달리스트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상연(경영80), 준메달리스트상은 송문섭(경영89), 다파상은 이동원(경영86), 다버디상은 서영성(경영89), 다보기상은 조명제(무역82), 롱기스트상은 박진영(경영88), 니어리스트상은 문호규(경영86), 행운상은 김영일(경영97) 후배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번 모임에는 809 3대 회장인 여용동(경영82) 전 회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주어 너무 반가웠다. 마지막 구호는 한규제(경영89) 회원의 영도 아래 809의 구호를 바꾸어 909, 009 후배들과 함께 외쳤다. 809!! 909!! 009!! 우리는 하나다!! 고고고!! 809모임은 앞으로도 선후배를 연결하는 친목을 다지면서 경영대학의 발전과 재학생을 포함한 후배들의 좋은 멘토가 될 것을 다짐했다.



909 회장 최창규(경영90)

909 상반기 골프대회 ●●●

- 일시 : 2024년 6월 2일(일)
- 장소 :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
(대표이사=정진혁 · 경영04)
- 주관 : 909 모임(골프회장=한희선 · 무역91)

· 개인전

시상내용 : 신페리오 우승, 메달리스트(금, 은, 동), 롱
기스트(남, 여), 니어리스트(남, 여), 다버디, 다파, 다보
기, 다양파, 뒤에서 2등, 팀 포토제닉, 참가상

※ 골드 메달리스트 84타 이규원 교우(경영95)



909 · 009골프대회

· 단체전

5개의 추첨을 통해 909, 009팀 승패를 결정

909 승리 시: 009가 909 회비 통장에 발전 기금 30만 원 입금

009 승리 시: 909가 009 회비 통장에 발전 기금 50만 원 입금

※ 009가 3승2패로 승리 50만 원 입금

- 나눔 (참석자 전원 100% 찬조 물품 준비, 함께 나누는 자리)

골프공, 골프 모자, 골프 클럽, 상품권, 와인, 식사권,

문화상품권, 현금 및 유가증권, 회사 탕비실 물품, 회사 시제품

- 참석자 (총 32명: 909 14명, 009 18명)

최창규(90), 박진석(91), 윤선규(92), 최강근(92), 김민정(95), 이규원(95), 김남기(96), 김민엽(96), 안성수(96), 김영일(97), 박소현(98),
장지영(98), 한경선(98), 남광민(99), 김건희(00), 김모란(00), 김한내(00), 천영석(00), 고한열(01), 조현우(01), 김선종(02), 김진만(02),
김현웅(02), 양지혜(02), 허시원(02), 이승주(03), 장선혁(03), 백철운(04), 범수진(04), 윤지영(04), 성시준(05), 최민식(05)

KUBS Ladies 회장 이충진(경영81) · 학생대표 이예린(경영21)

2024년 상반기 KUBS LADIES 활동 ●●●

중간고사와 축제 기간을 거치고 벌써 종강을 앞둔 시점이 오기까지 학생들에게 교우회를 알리고 교우 선배들과의 커넥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진하고 있다. KUBS LADIES 집행부는 앞으로의 1년을 함께 할 2024년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오프닝 행사를 통해 멘토와 멘티의 첫 만남을 가졌다. 4월 12일 법률,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진로를 희망하는 멘티들이 LG-POSCO관 안영일 홀에 모여 간단한 다과와 함께 매칭된 멘토들에 대해 소개받을 수 있었고, 다른 팀의 멘티들도 처음으로 만나보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2024년에 진행된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 ●●●

2024년 Good Evening은 현재 1차 미션까지 완수한 상태다. 각 팀이 각자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질문을 미리 준비하여 멘토를 직접 만나 맛있는 식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멘토의 답변을 토대로, 보다 확신을 얻었다는 후기가 있었다. 여름방학 중으로 있을 중간 미션과 2학기에 진행될 2차 미션을 위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유익한 형태가 되도록 고민을 거듭하여 운영할 것이다.



Good Evening 오픈식

선배들의 기증으로 이뤄진 티셔츠 무료 나눔행사 ●●●

5월 20일에는 축제 기간과 입실렌티를 앞두고 교우들이 기증해 주신 티셔츠를 무료 나눔하는 작은 행사를 가졌다. 스타트업 '버티카'를 창업, 운영 중인 경영학과 12학번 도은욱 교우와 10학번 임영빈 교우가 좋은 기회로 KUBS LADIES에 기증해 준 고려대학교 티셔츠를 선착순으로 신청한 학생들에게 증정할 수 있었다. 레플리카 공구나 굿즈 티셔츠를 구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선배들의 기증 덕분에 예쁘게 입을 수 있었다고 감사해했다.



티셔츠 무료 나눔행사

현재 종강을 앞두고 여름 방학에 22기 상시 리크루팅을 준비 중이며, 2학기 드림 콘서트 등 행사를 위해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항상 선후배 간의 커넥션과 재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KUBS LADIE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교우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알리고 싶은 교우님의 소식이나 모임 소식, 게재를 원하는 수필, 시, 칼럼, 여행기, 만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글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교우회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922-3762

· FAX 02-922-3763

· E-MAIL kubs@kubs.or.kr



〈개교 119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 열려

2025년 개교120주년 맞는 고려대의 사명 '인류 공헌' 선포

자랑스러운 고대인 상

고려대와 교우회는 5월 5일(일) 오전 10시 30분 인촌기념관에 서 〈개교 119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사회봉사상 ▲Crimson Award(발전공로상) ▲고대가족상 ▲석탑공로상 ▲장기근속표창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은 환영사로 “고려대의 사명은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인재를 길러 국가와 민족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패러다임을 바꾸는 교육혁신을 완수하도록 모두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김동원 총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내년에 맞이할 개교 120주년을 계기로 인류의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세계 속의 명문으로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할 것”이라며, “고려대는 기후 위기, 감염병 확산, 사회 경제적 양극화, 고령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류 공헌'을 새로운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승명호 교우회장은 “고려대는 단순히 과거를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36만 교우시대에는 세계 각지에서 선망받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모교의 발전을 적극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각종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은 송무현 송현그룹 회장(금속공69)과 강석희 미국연방조달청 태평양, 북서부, 북극 지역 총괄청장(농경제기), 권오섭 엘앤피 코스메틱 회장(지질78)이 수상했다.

송무현 교우는 선박용 케이블 제조기업 (주)티엠씨 설립을 시작으로 (주)송현홀딩스, (주)TMC, (주)Glowone, (주)에스비비테크 등을 설립, 회사를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춘 제조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켰다. 또한 신공학관 건축기금, 자연계

학생회관 리모델링 기금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모교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강석희 교우는 미국 이민 후, 1992년 LA 폭동을 겪으며 열악한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미장학재단 회장, 미주한인정치연합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2004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최초의 아시아계 시의원 당선, 2008년 한인 1세 최초 어바인시 직선시장 당선, 2023년 1월에는 미 연방조달청 태평양, 북서부, 북극지역 총괄청장에 임명되었다. 또한 뉴욕 카네기 재단으로부터 '위대한 이민자상'을 수상하여 미주 한인 사회와 모교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크게 공헌했다.

권오섭 교우는 30여 년간 화장품 분야에 헌신하여, 대표 브랜드 '메디힐'을 세계 26개국에 성공적으로 진출시켰으며, 앨앤피 코스메틱 기업을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이끌었다. 또한,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메디힐 지구환경관' 건립 등 모교와 교우회 발전을 위해 250억 이상을 기부하는 등 모교에 대한 애정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봉사상은 나눔의 정신을 널리 알린 교우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는 권순영 영양과교육 인터내셔널 대표이사(농화학65)가 선정됐다. 권순영 교우는 2004년 LA에 NGO 단

체인 영양과교육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여, 20년 넘게 콩 재배와 가공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현지인의 영양실조와 기아 해소에 크게 공헌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자조자립형 영양실조 퇴치모델'의 타 국가 전파, 양계사업 지원, 여성 경제력 강화프로그램, 난민촌과 고아원 무료 급식 프로그램 등을 펼치며 다양한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Crimson Award(발전공로상)는 고려대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인물의 공로를 기리고자 제정된 상으로, 올해는 정진혁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 대표(경영04), 이명근 (주)성우하이텍 회장(법학64)이 수상했다. 이어 ▲고대 가족상은 3대가 고려대학교를 다닌 유달로 교우가족, 송기철(상48) 교우가족, 사공인숙 교우가족, 송인태 교우가족과 가족 중 5명 이상이 고려대학교를 다닌 한영관 교우가족, 금근택 교우가족이 수상했다.

▲장기근속표창은 물리학과 조동현 교수(30년), 분자생명과학과 백자현 교수(20년), 영어영문학과 남호성 교수(10년), 직원으로는 주태훈 학술정보큐레이션팀 차장(30년), 추영민 미래교육원 교육사업팀 차장(20년), 문석환 대외협력팀 과장(10년)이 대표로 수상했다. ▲석탑공로상은 고려대 발전에 이바지한 직원들에게 주는 상으로 최호진 안전관리팀 직원, 양제윤 교양교육원 행정팀 직원이 대표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www.korea.ac.kr



Crimson Award



고대가족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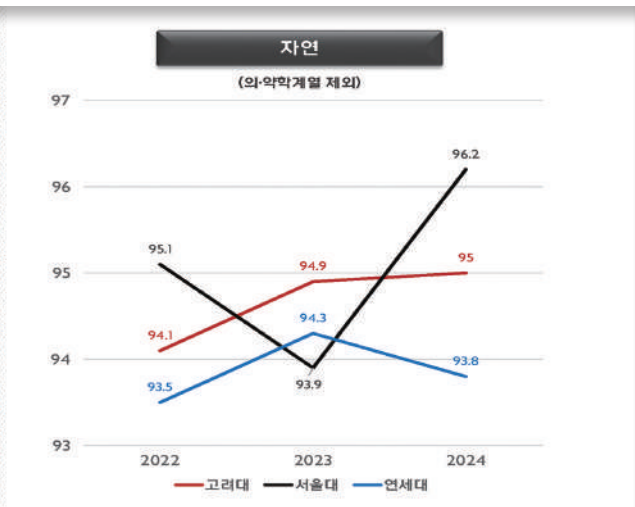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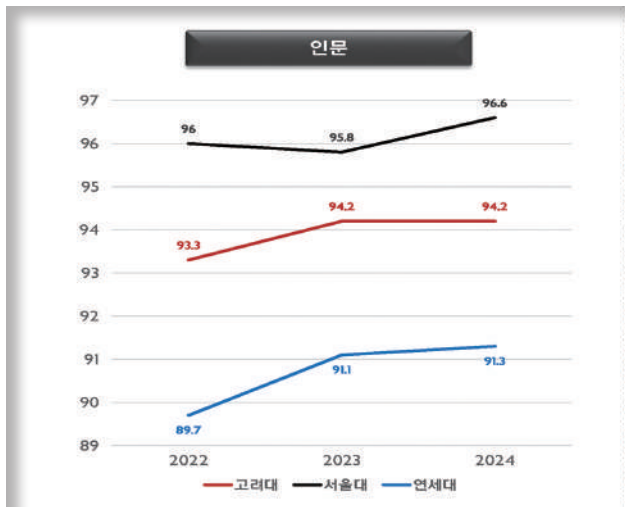


고려대, 3년 연속 정시 입시결과 사립대 1위

2022~2024 정시모집 합격선 인문·자연계열 모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순

2022~2024학년도 '대학어디가' 정시 일반전형 시행 결과 공시자료 분석 결과

국수탐 백분위 평균 70% Cut의 모집단위 평균(최종 등록자 기준)



2022~2024학년도 '대학어디가'에 발표된 정시 합격선 분석 결과, 본교가 3년 연속 사립대 1위로 나타났다.

'대학어디가'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정시 70% cut(일반전형, 국수탐 백분위 평균, 모집단위 평균, 최종등록자 기준)기준으로 인문계열은 서울대 96.6, 고려대 94.2, 연세대 91.3 순이었다. 자연계열(의·약학계열 제외)은 서울대 96.2, 고려대 95.0, 연세대 93.8로 확인됐다. 의학계열의 경우에는 99.0으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가 동일한 백분위를 보였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입시결과도 마찬가지였다. 2022학

년도 정시모집 합격선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약학계열 제외) 모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이었으며, 특히 2023학년도는 자연계열(의·약학계열 제외) 기준으로 고려대가 94.9로 국내 대학 중 가장 높은 합격선을 보였다.

정시모집에서 이와 같은 고려대의 선전은 최상위권 우수 인재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전형 설계와 첨단분야 계약학과와 신설 및 확대 등이 주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려대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다수 지원한 결과로 판단된다.

www.korea.ac.kr



“어려움을 딛고 꿈을 좇던 현재의 순간을 간직하라” …2024학년도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성료



2024학년도 1학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김상용) 장학증서 수여식(이하 수여식)이 5월 23일 LG-POSCO경영관 안영일 홀에서 성료됐다. 이번 행사에는 청평회사장 운영위원회 서광수 감사, 경영대학 배종석 교수, (주)KCC 양성일 상무, 연두컴퍼니 한정수 대표이사, 경영대학 이동섭 교수, 김상용 학장 등이 내빈으로 참여했으며 경영대학 장학생 6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수여식이 시작하기에 앞서, 김상용 학장은 기부자들과 장학생들에게 축사를 건넸다. 김상용 학장은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담긴 후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치열하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삶을 꾸려가는 학생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몇 년 뒤 이곳의 기부자들처럼 후배들을 응원하는 든든한 선배가 되어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경영대학 장학금은 수업료 장학금인 △고경면학장학금과 생활비 장학금인 △KUBS Dream Scholarship으로 구성된다. 이번학기 고경면학장학금의 수혜 학생 인원은 총 82명으로, 총 장학금액은 135,755,000원에 달한다. KUBS Dream Scholarship의 수혜 학생 인원은 총 84명으로, 총 장학금액은 209,600,000원으로 추산된다.

이후 기부자들의 장학증서 수여식이 이어졌다. 이번 학기에는 △서광수 Dream Scholarship △은민 Dream Scholarship

△엠앤제이문화복지재단 장학금 △95드림케어 Dream Scholarship △한정수 Dream Scholarship △KUBS Dream Scholarship 외 31개의 장학금을 통해 166명의 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았다.

수여식이 끝난 후 수여자와 장학생은 덕담과 감사 인사를 나누는 만찬시간을 가지며, 기부자들의 인사와 장학생 대표의 감사인사말로 이어졌다. 서광수 감사는 “훗날 지금처럼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어려움을 딛고 달리는 성취감과 열정을 꼭 기억하고 간직하며 산다면, 앞으로도 좋은 기회를 찾고 쟁취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배종석 교수는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 그 누군가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길 바란다”는 조언을 남겼다.

다음으로 이호승(경영23) 장학생 대표의 감사인사말이 있었다. 이호승 학생은 “장학금 지원을 통해 현재는 브랜드컨설팅 학회에서 기업 실무활동을 경험하고 전문가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며 비슷한 진로를 가진 학생들과 성장하는 기회를 누리고 있어 참 감사하다”며 “장학금을 받으며 큰 도움을 느낀 만큼 앞으로 미래에 학생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후 참석한 학생들과 수여자들이 함께 교가를 제창하는 것을 끝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이 마무리됐다. 경영신문 706호 발취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

2024년 행사일정

*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시	행사명	장소
2월 23일(금) 14:30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인촌기념관
3월 15일(금) 18:00	상반기 상임이사회	취영루
5월 8일(수) 12:00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패컬티 하우스
6월 13일(목) 11:00	상반기 골프대회	몽베르CC
9월 10일(화) 예정	야구부 후원금 전달	장소미정
9월 26일(목) 12:00	제2회 경영대 OB 골프연고전	페럼CC
9월 28일(토) 18:00	고연전 뒤풀이 축제	춘자
10월 8일(화) 12:00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패컬티 하우스
10월 15일(화) 18:00	하반기 상임이사회	취영루
10월 18일(금) 11:00	하반기 골프대회	장소미정
12월 6일(금) 18:30	제42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층)

COSMO

최고를 향한 새로운 도전!



COSMO



***Anytime
Anywhere***



MIGHT & MAIN(주)

사장 최 철 원 (무역88)